
碩士學位論文

農村女性の 意識構造에 關한 考察

- 濟州地域 農村女性을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許 都 會

碩士學位論文

農村女性の意識構造에 關한 考察

- 濟州地域 農村女性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忠 錫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許 都 會

1995年 12月 日

農村女性の 意識構造에 關한 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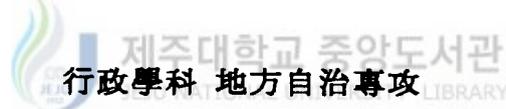
- 濟州地域 農村女性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高 忠 錫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許 都 會

許都會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5年 12月 日

委 員 長 _____(인)

委 員 _____(인)

委 員 _____(인)

目 次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1
2. 研究의 目的	3
3. 研究의 範圍 및 方法	4
II. 農村女性에 관한 理論的 考察	6
1. 農村人의 意識構造	6
2. 農村女性의 意識構造	36
3. 農村女性의 意識에 대한 先行研究	42
III. 假說의 設定과 調査方法	46
1. 假說의 設定 및 設問의 構成	46
2. 調査方法	50
IV. 濟州道 農村女性의 意識構造 分析	53
1. 資料의 概要	53
2. 意識構造의 分析	54
V. 結 論 및 示唆點	90
參考文獻	96
Summary	99
設 問 紙	102

表 目 次

<표 II-1> 국별 도시/농촌구분의 인구크기	8
<표 II-2> 농촌사회와 도시사회와의 비교	9
<표 II-3> 한국 사회변화의 지표: 1940~1990	10
<표 II-4> 농어가 인구구조	14
<표 II-5> 연령별 농가 인구구조	15
<표 II-6> 영농형태별 농가분포(1990)	16
<표 II-7> 전·겸업별 농가호수	17
<표 II-8> 가족기능의 변화	20
<표 II-9>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망	24
<표 II-10> 가사노동의 분담실태	38
<표 III-1> 설문 의 구성	50
<표 III-2> 표본의 배포 및 회수현황	51
<표 IV-1>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구성	53
<표 IV-2> 농촌여성의 가족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55
<표 IV-3> 농촌여성의 친족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56
<표 IV-4> 농촌여성의 공동체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57
<표 IV-5> 농촌여성의 전통적 가치성향의 차이	58
<표 IV-6> 농촌여성의 사회진출 의식의 차이	59
<표 IV-7> 농촌여성의 재정담당 의식의 차이	60
<표 IV-8> 연령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62
<표 IV-9> 학력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64
<표 IV-10> 생활수준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65
<표 IV-11> 소유토지 면적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67
<표 IV-12> 농촌여성의 농정의식 차이	69

<표 IV-13>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70
<표 IV-14> 가정활동/영농활동의 난이도	72
<표 IV-15> 연령별 농촌여성의 역할	73
<표 IV-16> 농촌여성의 어려움	74
<표 IV-17> 소유토지별 농촌여성의 어려움	74
<표 IV-18> 농촌여성의 대정부 요구사항	76
<표 IV-19>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연령별)	77
<표 IV-20>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학력별)	77
<표 IV-21>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생활수준별)	78
<표 IV-22>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소유토지 면적별)	78
<표 IV-23> 소유토지 면적별 농기계의 보급도	79
<표 IV-24> 영농정보의 원천(연령별)	80
<표 IV-25> 영농정보의 원천(학력별)	81
<표 IV-26> 영농정보의 원천(생활수준별)	81
<표 IV-27> 영농정보의 원천(소유토지 면적별)	81
<표 IV-28> 분석결과의 요약	85



圖 目 次

<도 II-1> 행정구역별 1차산업의 성별 구성비율	11
<도 II-2> 농가의 월별 농업투입 노동시간의 M-사이클	13
<도 II-3> 농어의 인구구조	14
<도 II-4> 연령별 농가의 인구구조	15
<도 II-5>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16
<도 II-6> 전·겸업별 농가호수	17
<도 II-7> 농민생활의 4대 영역	26
<도 IV-1> 농촌여성의 재정담당 의식의 차이	61
<도 IV-2> 가사담당 의식의 연령별 차이	63
<도 IV-3> 가사담당 의식의 학력별 차이	64
<도 IV-4> 가사담당 의식의 생활수준별 차이	66
<도 IV-5> 가사담당 의식의 소유토지 면적별 차이	67
<도 IV-6> 가정활동/영농활동의 어려움	72
<도 IV-7> 농기계의 보급정도	79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과거 우리 나라는 농업을 경제적 기초로 하는 농촌사회를 이루고 살아왔으며, 농촌사회가 일반적으로 갖는 폐쇄주의, 전통주의, 가족주의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가 주체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농촌사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60년대 72%이던 郡部인구가 1990년에는 26%로 감소하였고, 5·16 이후 3차산업의 농촌경제 침투는 농촌사회의 자급성을 결정적으로 파괴하였다. 그리고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의 공업제품 의존도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 대중매체의 발달 등으로 그 변화 정도는 점차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국가의 강력한 개발주도적 지도력,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능률을 위한 정치개혁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관료의 조직편제와 운영동원의 선행적 조건이 갖추어짐으로써 가능했다.¹⁾ 즉 영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 마을내부에서 자율적·자생적으로 선출하여 헌신하는 새마을 지도자, 우수 새마을 우선지원의 원칙 그리고 가치있고 효과적인 새마을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산업부문간의 성장을 격차로 국민총생산 가운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취업자수에 있어서도 농림어업 취업자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이농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1차산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인구의 절반이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등 1차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²⁾ 또한 이농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농촌 노동력 부족

- 1) 왕인근(I), "새마을운동 성공의 선행적 필요요건",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0호, 제1권, 1977, pp.44-48.
- 2) 양영철, "제주도 지방공무원들의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태도분석", 제주지역개발과 정책과제, 제행논총, 제1집, 1993, pp.122-123.

현상과 함께 농업 노동력 구조의 부녀화,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이러한 고령화, 부녀화현상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분업의 관념이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농촌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농촌여성은 전통적인 가사노동 전담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농업 노동자원으로서 농업노동 참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들을 생산적인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혹은 비자발적인 부락단위의 조직활동에의 참여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가족생활, 생산활동, 교육생활 그리고 소비생활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에 따라 농촌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주관적 체험이 변화해 오므로써 그의식구조도 함께 변화해 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아울러, 농촌여성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변화의 측면도 농촌사회의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발언권의 증대나 소비 재량권의 증가와 같은 측면들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는 사회적 분화와 다양화 그리고 유동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인간소외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산지향과 보전지향의 대립, 성장요구와 분배요구의 대립을 심화시켜서³⁾ 농촌여성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농촌여성이 농촌사회의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사회에 대한 정책추진 등 제반 제도적 변화를 도입함에 있어 그들의 의식구조, 역할, 영향력 등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통적 가치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계승발전시켜서 근대적인 가치의 합리성과 조화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의 농산물 수입개방 등이 잇따르면서 일부 농민들의 전업이 고려되거나, 농촌생활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로 대정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역할증가는 농촌여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3) 부단근, "지역개발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사회발전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4, p.18.

것은 농촌 사회구조와 관련한 여러 행태, 즉 전통적 태도, 대중매체에의 노출정도, 사회제도와 규범,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농업관·사회관, 농업만족도, 농촌의 전망, 농업정책 요구사항, 농촌부녀자의 역할구조 등이다. 따라서 특정 의식구조 또는 가치관하에서 농촌사회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농촌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사회의 핵심이 되는 가족, 친족, 공동체에 대해 농촌여성이 갖는 가치관 또는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농촌사회의 여러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에서는 도서라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의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구조, 역할, 영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가 농촌여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부녀자들의 의식구조를 가족 및 친족과 관련시켜서 그 차이를 파악해 본다. 즉 농촌사회는 가족 및 친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가족과 친족에 대한 의식구조가 변화하는 것은 곧 농촌사회의 기반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농촌사회에서 중요시되던 남성의 역할, 상부상조의 전통 등의 사회적 규범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위향상이 이루어진 여성의 행태(行態)는 농촌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농촌여성의 역할을 재정 및 가사활동에서 그 역할수준을 파악한다. 즉 전통적 농촌사회의 구조하에서는 남성의 의사결정권이 거의 지배적이었으나 농촌사회의 특성이 도시 및 산업사회와의 동화적 현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변화된 사회환경하에서 농촌여성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을 파악해 본다. 어떠한 사회에서나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그에 따른 만족정도가 그 구성원 각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역할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이 바람직한 사회풍토를 이루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필연적인 문제를 파생시키므로 이에 관한 원인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그 사회 구성원의 요구사항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보다 나은 사회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및 농협, 농촌진흥원, 각 행정기관 등에 바라는 농업관련 교육의 내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3. 研究의 範圍 및 方法

제주도의 토양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돌이 많고 물이 지표속으로 쉽게 스며들어 복류하는 지질의 종류이므로, 논농사 중심의 집약적인 농업양식은 제주도에 적합치 않다. 따라서 대부분 전작 경작지로서 발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농업조건에서, 제주여성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다시피 하였다.

발농사는 힘을 요하는 발갈이를 제외하면 남성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 남성들도 김을 매거나 보리베기 등 일손을 거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농사에서 그들의 전담 역할은 발갈이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심지어 그런 일조차 품앗이로 해결할 수도 있어, 여성 혼자서도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할 수 있었다. 여성들은 농사의 주책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잠수활동까지도 떠맡아 경제체계의 주요부문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여성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자신감은 남성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심을 탈피하고 철저한 자립심을 기르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이상과 같은 제주의 특성은 육지의 농업조건이 계절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제주지역 농촌 여성들의 다양한 주제에 따른 의식구조도 다르게 나타나고 또한 지역적 특성을 보임

4)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p.3.

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범위가 광범위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제주지역의 농촌여성에 한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본 연구는 농촌사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 폐쇄성, 전통주의 및 가족주의와 관련된 의식구조 차이가 있다면 연령, 학력, 소득, 생활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본 연구의 범위로 한정시켰으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의 2개의 시와 2개의 군부 중 북제주군 지역의 한림읍 등 인구 5만이하인 4개 읍지역과 1개 면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고찰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이론적 고찰은 국내외의 서적 및 관련논문 그리고 각종 통계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연구의 전반적인 상황이해를 위해 농촌의 개념을 포함한 농촌사회의 구조, 그 사회 속에서 살아 가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 및 가족, 친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세계 등을 고찰하였다.



II. 農村女性에 관한 理論的 考察

1. 農村人の 意識構造

1) 農촌사회의 구조

(1) 農촌사회의 개념

農촌은 도시와 대조가 되는 말로서 보통 시골 또는 農촌지역사회, 農촌공동체 (rural community)라는 넓은 의미로 쓰기도 하며, 농사를 짓는 農촌부락 (agricultural village)이란 좁은 의미로도 쓰인다. 農촌이 주로 농사를 짓고 하나의 단위 지역을 이루는 農업촌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農촌사회의 구조를 밝히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영농(farming) 또는 농업,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며 사는 農민들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행정적 기준으로 단위지역내의 인구수에 따라서 도시 또는 農촌이라는 행정적인 지위가 결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50,000명 이상의 인구를 지닌 지역이 '시', 즉 도시로 규정되고 있으며, 20,000-50,000명의 인구를 가진 지역은 '읍', 20,000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0,000명 이하가 거주하는 읍과 면, 즉 '郡'은 農촌으로 되어 있으나⁵⁾, 이러한 農촌을 규정지을 때 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 몇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며 農촌과 도시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 農촌의 개념에 대한 견해

農촌과 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5) 왕인근(II), 현대의 農촌사회학 - 한국農촌사회학 서설-, 박영사, 1983, p.21.

볼 수 있다. 즉, 농촌과 도시를 독립적으로 양분하여 보는 견해, 농촌과 도시를 발전수준선상의 연속적 관계로 보는 견해, 그리고 농촌과 도시를 공생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 등이다.

첫째, 농촌과 도시를 독립적으로 양분하여 보는 견해는 농촌의 개념과 사회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도시와의 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보다는 도시와의 차이나 대조만을 독립시켜서 폐쇄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교통, 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 폐쇄성을 고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많은 농촌 사회학자들이 농촌의 상대적 낙후성을 밝혀 내고 도시에 우선한 개발의 추진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양분적 접근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둘째, 농촌과 도시를 발전수준선상의 연속적 관계로 보는 견해는 농촌과 도시를 양분하여 사회구조를 검토하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도시 - 중도시 - 소도시 - 소도읍(읍·면소재지) - 평지농촌 - 오지(島嶼僻地)농촌과 같은 도시화 또는 발전수준에 따라 등급을 둔 직접적 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양분법을 다분법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발전단계와 관련시켜 보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과 도시와의 비교의 한 방법으로 대도시, 기타 도시, 읍, 면으로 4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들 4개의 지역요인이 다른 어떤 발전수준과 관련된 요인들과 어떤 이론적 체계를 세워 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농촌과 도시를 공생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위의 연속적 접근은 아직도 농촌과 도시의 상대적 차이를 크게 인정하여 농촌과 도시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 세번째 공생적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는 하나의 커다란 사회구조 전체 속에서 농촌과 도시가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역점을 두고 농촌사회만을 따로 떼어 보는데서 나오는 모순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농촌의 수준이 도시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서로의 교류가 그들 생활 전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특히 인간생태학의 분야에 많이 적용되는 접근방법이다.

(3) 도시와 농촌의 구분기준

농촌과 도시의 구분에 대한 이론이나 실체는 학자마다 다르고 서로 다른 사회구조와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이론의 차이는 학자들의 견해와 연구에의 조작을 위하여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통설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각 나라마다 규정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크게 인구의 크기, 산업구조 및 자치적 능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대개가 인구의 크기에 따라 또는 인구의 크기와 관련하여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인구의 크기의 기준도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 <표 II-1>

<표 II-1> 국별 도시/농촌구분의 인구크기

국가	인구의 크기(명)	국가의 면적(Km ²)	인구밀도(Km ²)
오스트레일리아	2,000	7,686,848	2.1(1986)
프랑스	2,000	547,026	98(1979)
서독	10,000	248,651	245(1986)
네덜란드	20,000	33,811	409(1977)
일본	30,000	377,582	305(1979)
우리 나라	50,000	99,016	422.1(1986)

자료: 교육도서, 교육 세계백과대사전, 1990.

경제기획원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농촌이라 함은 인구 5만 이상의 시를 제외한 군부지역, 즉 인구 5만 미만의 읍과 면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와 군의 행정구역별 단위로 볼 때 시는 인구 5만이 이미 넘는 도시이며 군을 다시 읍과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인구가 2만이 넘을 때 읍으로 승격되고 2만이 안되면 면에 머무르게 된다.⁶⁾

그러나 많은 수의 읍이 인구증가로 인하여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시로 승격되지 못한 채 읍에 머물고 있는 수가 많다. 이렇게 읍지역은 인구 5만이 넘는 곳과 미달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전자는 도시에 후자는 면과 함께 농촌으로 규정

6) 지방자치법시행령 7조, 법전출판사, 1994. p.609.

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읍을 소도시로 규정짓고 있지만 이는 실제적 구분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형태로 보자면 시나 5만 이상의 읍의 변두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일 뿐 농촌과 똑같은 경우가 많으며 자료의 성격상 시부만을 도시로, 그리고 모든 군부를 농촌으로 규정지어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수도 많다.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엄격히 보면 모순된 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아서는 엄밀한 규정에 의한 구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농촌과 군부, 도시와 시부를 같은 것으로 보는 수도 많은 것이다.⁷⁾

미국의 P.A.Sorokin과 C.C.Zimmerman⁸⁾은 8개의 지표를 가지고 농촌과 도시를 사회학적 규정의 측면에서 <표 II-2>와 같이 분류하였고, Louis Wirth⁹⁾는 해당지역의 형태적인 면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의 생활양식에 주목하여 도시를 규정하려고 하였다.

<표 II-2> 농촌사회와 도시사회와의 비교

지표	지역	농촌사회	도시사회
직업		농민이 주체	비농업적 직업으로 구성
환경		자연이 우위 차지	인간이 만든 환경이 지배적
지역사회의 크기		동일조건하에서 도시보다 작다.	동일조건하에서 농촌보다 크다.
인구밀도		작다.	크다.
인구의 이질성과 동질성		인종적·사회심리적으로 동질적이다.	인종적·사회심리적으로 이질적이다.
사회적 분화와 계층		비교적 단순한 구성	사회적 분화가 크다.
이동성		지역적·직업적 기타 사회적 이동이 적다.	이동은 농촌보다 심하며,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유입이 많다.
상호작용의 형태		접촉범위도 좁고 1차적인 情誼的 관계	접촉범위가 넓고 2차적 접촉이 지배적이며 非情誼的 관계

자료: P.A.Sorokin and C.C.Zimmerman, *Principles of Rural-urban Sociology*, Henry Holt Company, 1929, p.8.

7) 정지웅 (I), 농촌사회구조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4, pp.208-211.

8) P.A.Sorokin and C.C.Zimmerman, *Principles of Rural-urban Sociology*, Henry Holt Company, 1929, p.8.

9) Louis Wirth, *Our Cities: Their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1937, pp.10-11.

또한 오늘날 일반적으로 도시는 인구량이 크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지배적으로 비농업종사자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역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R. Dewey¹⁰⁾는 보다 의미 있게 사회학적으로 농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촌과 도시간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징의 차이를 익명성, 분업, 주민의 이질성, 공식적 대인관계 그리고 지위의 외면적 상징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농촌은 이들 기준에 의하면 비교적 정도가 낮은 사회·문화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고,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차이가 인구의 측면과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4) 농촌사회의 구조

농촌은 농토를 기초로 한 사회이며 농업의 성질상 농촌 사람은 정착적이다. 그리고, 토지생산을 행하기 때문에 농촌 부락은 도시처럼 쉽게 커지지 않으며, 한 촌락 안에서 서로 가까운 사이끼리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농촌은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장소와 소비장소가 같은 마을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농촌사회는 도시화되어 가는 여러 과정과 변천을 겪고 있다. 1990년 현재 1차산업 종사자는 17%에 그쳐 1940년의 81%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농촌은 인구, 교통, 통신, 매스컴 등 현대의 문화교류의 영향으로 지역적인 고립성을 탈피하면서 서서히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로 도시와 같은 사고방식, 경제관념, 생활양식을 모방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3> 한국 사회변화의 지표: 1940~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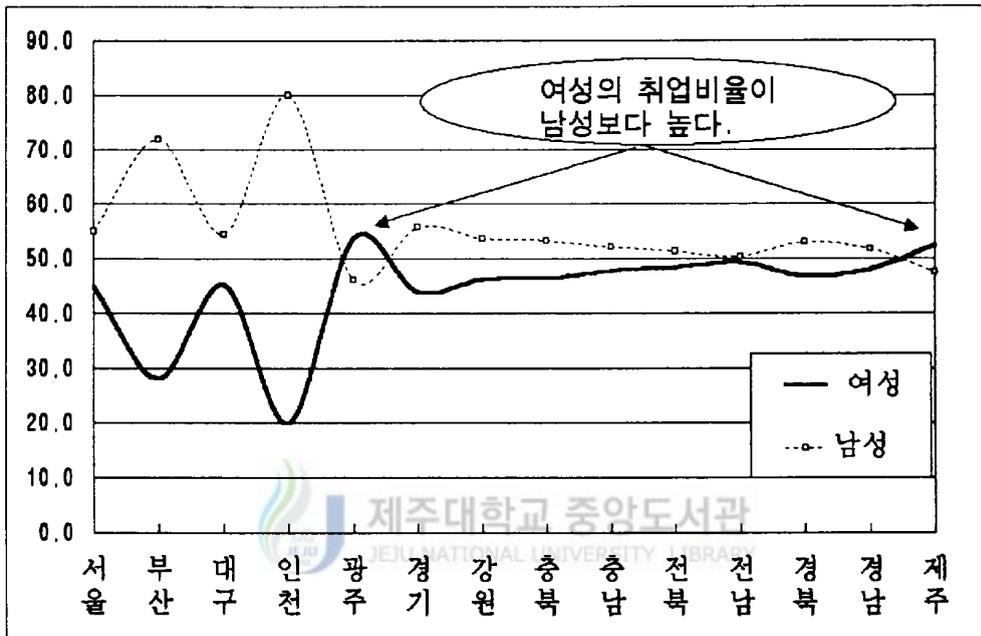
구분 \ 연도	1940	1990
GNP(US\$)	82(1960)	6500
도시화(%)	8	83
기대수명(세)	36	72
1차 산업종사자(%)	81	17
2차 산업종사자(%)	4	28
3차 산업종사자(%)	15	55

자료: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 1940, 통계청, 한국사회지표, 1992, 1993.

10) Richard, Dewey, "The Rural-urban Continuum: Real But Relatively Unimporta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60, Vol.66, pp.60-66.

또한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의 1992년 성별 분포를 보면 <도 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지역과 광주지역의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남성취업자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전국의 남성대비 여성의 평균비율은 47.6%인데 비해 제주지역은 52.52%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도 II-1> 행정구역별 1차산업의 성별 구성비율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4, pp.134-135.

가족적 경영이 행해지는 우리 나라 농촌은 가족이 곧 생산단위이며 소비단위가 된다. 농촌사회는 배후의 가족이 모두 서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 사람의 사회 관계도 역시 가족간의 관계이다. 그리고, 집단부락으로 지역적인 한계가 지어지고, 생산장소가 부락을 멀리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농촌 사람은 접촉 범위가 한정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같은 부락 사람끼리의 사회 관계가 대부분이므로 농촌의 사회관계는 전인격적이며 영속적인 관계가 된다.11)

11) 신건식 외 3인, 농촌지도론, 진명문화사, 1973, pp.12-13.

오늘날 농촌의 자연부락은 과거의 농촌공동체처럼 한 개의 사회적 통일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생산과 소비활동, 종교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강력한 사회적 통일과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부락의 주민이 공동으로 지내는 부락제라든가, 부락 공동활동을 위한 상부상조의 전통, 부락 질서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하여 사회적 통일과 구속력이 존재하고 있다.¹²⁾

농촌사회의 변화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의 변화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 즉, 이농, 이촌, 향도현상에 따른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대가족의 감소와 핵가족화(노부부 핵가족) 및 1가족 2가구 이상 형성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 있어서의 산업화는 농업, 농민, 농촌중심의 사회경제 조직이 공업, 기업가, 자본가,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전통 농촌모형이 지배하는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산업사회로 재통합되고 있는 것이다.¹³⁾ 이러한 과정은 농업노동력 구조, 농가의 영농형태, 가족구조, 농촌생활 변화 등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 진다.

가.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

한국의 농업인구, 농가호수는 1967년을 계기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농업노동력과 관계가 깊은 농림업 경제활동 인구는 197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¹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노동력의 감소는 농업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유발시켰고, 이에 따라 농업임금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반면 쌀값의 상승은 미미해 농가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업노동력 부족현상¹⁵⁾은 첫째,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다. 그 동안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등의 농기계 보급과 제초제 등의 농약보급으로 농번기에 요구되는 농업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시설원예, 축산 등과

12) 상계서, pp.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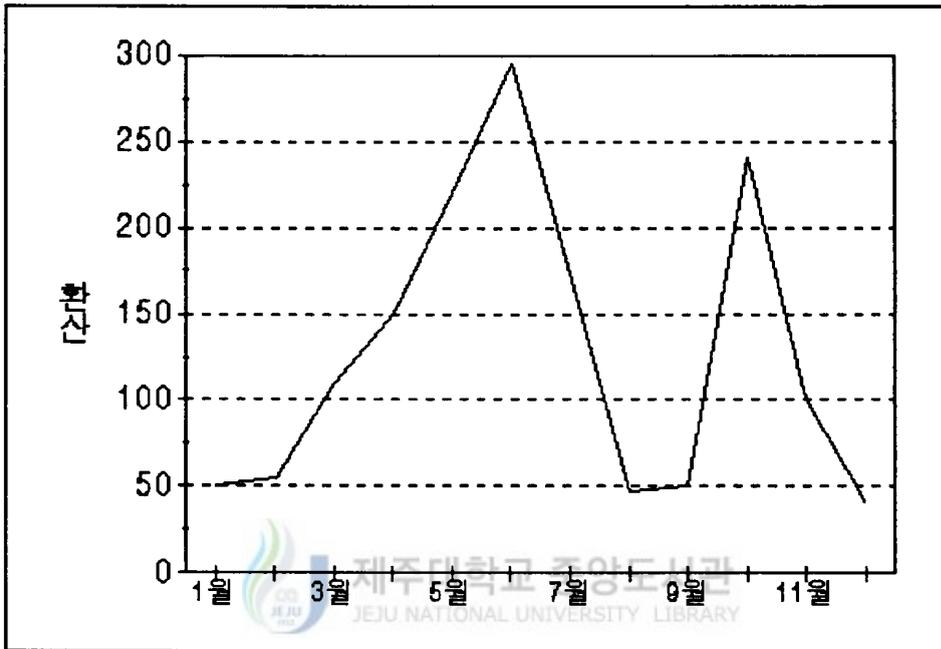
13) 최양부·오내원,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1985-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pp.19-20.

14) 김성호, "농업기계화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당면과제", 농업현실과 농업기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p.4.

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II), 농촌사회구조변화와 농협, 1986, pp.36-37.

같은 노동 집약적 작목의 도입에 따라 농한기에도 노동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남으로써 농업노동력의 편중현상은 약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농촌 노동력의 거대한 이동 등으로 <도 II-2>와 같은 M-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

<도 II-2> 농가의 월별 농업투입 노동시간의 M-사이클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사회구조변화와 농업, 1986, p. 36.

둘째, 농업 노동력의 부족문제는 모든 농가계층에서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영농에서 농지가 2헥타르 이상인 계층이 가장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1985년에는 영농 종사자가 감소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농촌 노동력의 구조는 농기계 보급 등으로 농번기 노동력의 감소효과도 있었으나 1차산업 분야의 세분화와 농촌 노동력의 유출, 노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은 부족하고, 또한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농어

가의 인구는 1970년에 총인구의 45.9%이던 것이 1992년 현재에는 총인구의 13.1%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구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표 II-4>

뿐만 아니라 감소된 농가인구를 연령별로 볼 때에도 30~40대의 연령층은 줄어들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오고 있다.<표 II-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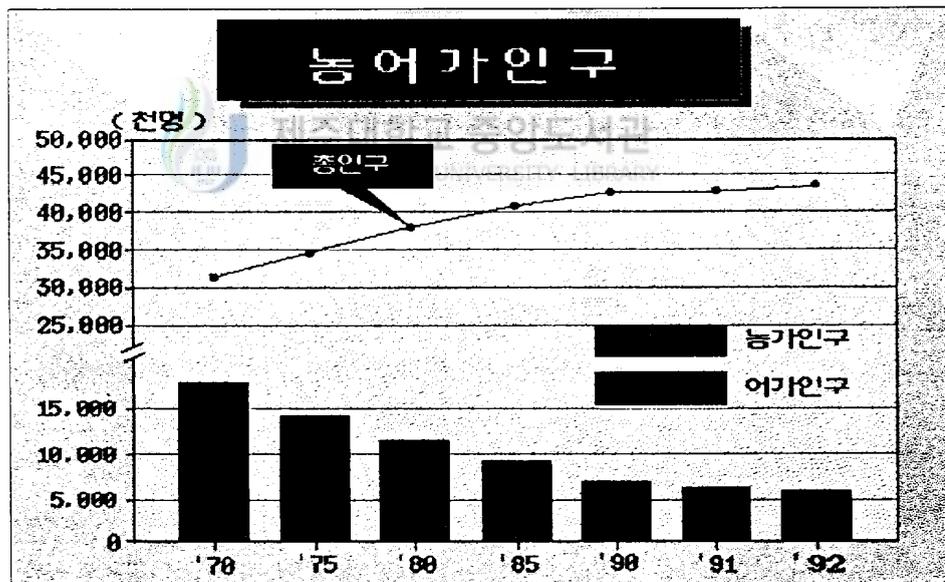
<표 II-4> 농어가 인구구조

(단위: 천명)

구분 \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1	1992
총 인 구	31,466	34,707	37,436	40,448	42,869	43,268	43,663
농 가 인 구	14,422	13,244	10,827	8,521	6,661	6,068	5,707
어 가 인 구	1,165	894	844	689	496	470	425
농가인구비율(%)	45.9	38.2	28.9	21.1	15.3	14.0	13.1

자료: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천리안의 농업관련 자료실, 1995.

<도 II-3> 농어가의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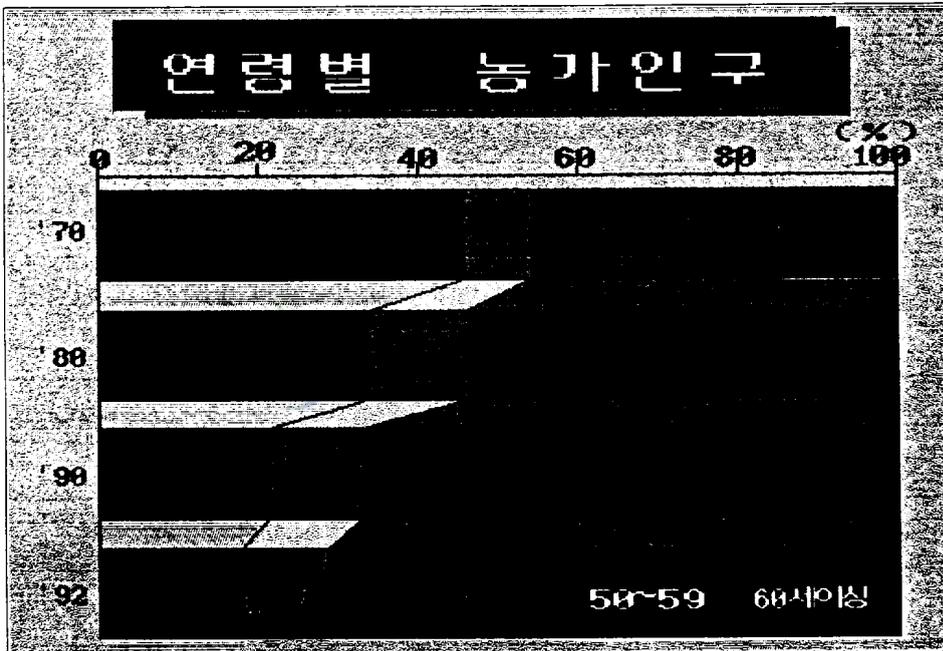
<표 II-5> 연령별 농가 인구구조

(단위: 천명)

연령 연도	총농가인구	15세미만	15-19세	20-49세	50-59세	60세이상
1970	14,422	6,518	1,250	4,404	1,107	1,143
1980	10,827	3,573	1,341	3,701	1,074	1,138
1990	6,661	1,370	734	2,259	1,111	1,187
1991	6,068	1,175	647	1,876	1,115	1,255
1992	5,707	1,040	577	1,791	1,062	1,237

자료: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1995.

<도 II-4> 연령별 농가의 인구구조



나. 농가의 영농형태

우리 나라 농업의 구조적 변화 중 하나는 상업적 농업의 발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18세기에 경영형부농(經營型富農)이 형성되었고, 봉건적 지주형부농(地主型富農)과는 구분된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상업적 농업의 본격적 진행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농가 사이에서 채소, 과수, 축산 등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업적 영농의 발전이나 이에 따른 농가경제의 불안정성의 증대는 농가의 영농형태 및 영농성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¹⁷⁾

<표 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이 논벼에 주력했던 영농형태가 1990년 현재는 상당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전업농의 비율이 절대적이던 것과는 달리 겸업농이 출현하였으며, 전업농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겸업농의 증가추세가 계속되고 있다.<표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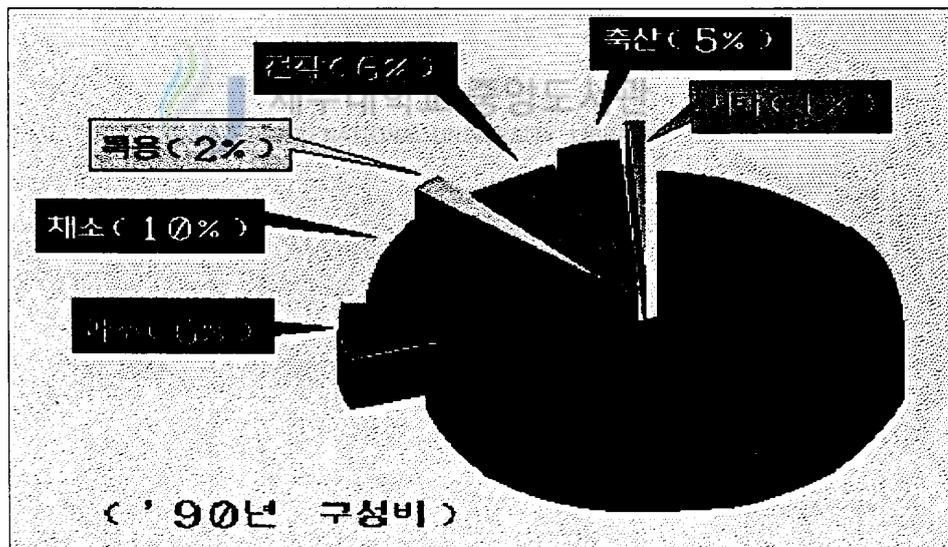
<표 II-6> 영농형태별 농가분포(1990)

(단위: 천호)

구분	합계	논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전작	축산	기타
농가수	1767	1232	107	172	39	114	89	14
구성비율(%)	100.0	69.7	6.1	9.7	2.2	6.4	5.0	0.9

자료: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1995.

<도 II-5> 영농형태별 농가분포



16)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71, p.10.

17) 농업협동조합중앙회(II), 전개서, p.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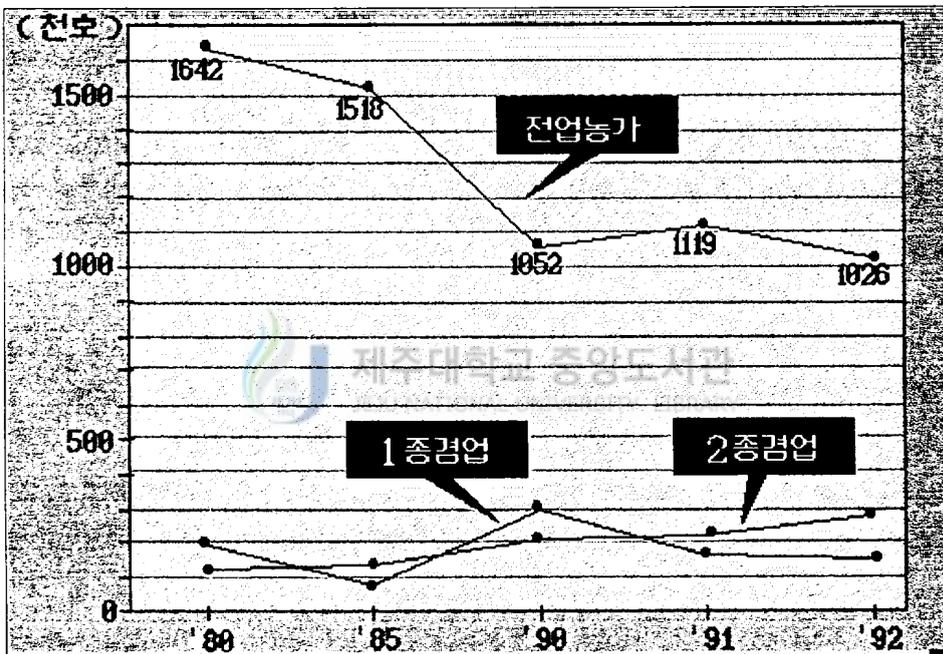
<표 II-7> 전·겸업별 농가호수

(단위: 천호)

구분 \ 연도		1980	1985	1990	1991	1992
총 농 가		2,155	1,926	1,767	1,702	1,641
전 업 농 가		1,642 76.2	1,518 78.8	1,052 59.6	1,119 65.7	1,026 62.5
겸 업 농 가	1종	295	168	389	254	252
	2종	218	240	326	329	363

자료: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관실, 1995.

<도 II-6> 전·겸업별 농가호수



다. 농촌의 가족구조

농촌사회의 중심은 가족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가족이라는 집단을 형성하며, 대부분 혈연에 의해 맺어지므로 가

장 결속력있는 집단이고, 이 집단들이 모여 친족을 형성하고 나아가 농촌사회라는 공동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사회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 집단의 구조, 요소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촌사회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기능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가족의 개념

가족은 두 사람의 남녀가 혼인이라는 절차로 결합하여 자녀를 갖고, 함께 협력해서 사는 비교적 영속적인 단위이다.¹⁸⁾ 여기서 혼인이란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절차이며,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가족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로 가족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사회적 단위가 친족이 된다.

친족체계는 승계, 유산의 전승을 사회적으로 규정, 조직하고 친족 성원간의 태도와 행동유형을 규제하는 집단조직을 이룬다.

나) 가족의 일반적 기능

가족의 다기능성이 그 동안 분화에 의하여 다른 특수제도로 성립되기도 하였지만 가족은 아직도 사회의 주요한 필요들을 충족시키고, 개인 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는 첫째, 성행위의 규제, 둘째, 사회적 재생산, 셋째, 양육과 사회화, 넷째,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 지지, 다섯째, 사회적 정체 부여와 지위귀속, 여섯째, 종교적 기능 그리고 일곱째, 경제적 기능 등을 들 수 있다.¹⁹⁾

첫째, 성행위의 규제 —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성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간사회는 규범을 통하여 이를 규제한다. 규범의 내용중 근친상간의 금기와 혼외성교의 제한은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며,

18) D. Popenoe, *Sociology*, Appleton Century Crofts, 1974, p.207.

19) 왕인근(II), 전제서, p.334.

특히 가족구성원은 가족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따라서 생리적인 여타욕구를 가정 내에서 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 사회적 재생산 — 가정은 자녀의 출생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원들을 배출해 내며, 이러한 기능이 순환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하다.

셋째, 양육과 사회화 — 출생한 어린이는 생물학적으로 독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타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가족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는 이를 통해 문화의 유지와 계승이 유지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보호와 정서적 지지 — 가족은 또한 그 성원이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곤경에 빠졌을 때, 그리고 노후에 서로 보호해 주고 상부상조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유대, 표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서로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섯째, 사회적 정체부여와 지위귀속 — 인간이 사회적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은 가족에의 소속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도 자신이 태어나는 가족의 지위에 따라 우선 귀속적으로 주어지고 한 개인의 삶의 기회도 가족의 배경에 의해 상당히 좌우된다.

여섯째, 종교적 기능 — 가족은 친족간의 우의를 굳히려는 뜻에서 조상숭배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 종교적 기능도 수행한다. 기성종교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족단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종교적 신앙이나 활동이 가족의 종교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일곱째, 경제적 기능 — 농경사회 이전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주요한 단위였으나 오늘날에는 대부분 가족이 생산의 기능보다는 사회의 소비단위로서의 역할이 크다.

이상과 같은 가족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농촌사회에서의 가족은 가족구성원이면 누구나 농업노동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고, 도시보다는 더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시키는 교육이 행해진다.

<표 II-8>은 지난 한 세대의 가족기능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8> 가족기능의 변화

가족기능	지난 한 세대의 변화내용	미래가족의 변화전망
경제공동체의 기능	생산기능상실/약화 소비기능 약화	가족과 일터의 분리약화 소비기능 강화
성행위와 출산통제	성과 출산통제 기능 약화 부부간의 성생활기능 강화	혼전·혼외 성관계 증가 성생활 기능 강화
자녀양육과 사회화	자녀양육기능 강화 사회화기능 왜곡	자녀양육기능 국가와 공유 사회화기능 재정립
정서적 유대/여가기능	정서적 유대 및 여가기능 강화	변화계속
사회보장기능	기능왜곡(핵가족책임론)	사회보장기능 국가와 공유
지위계승기능	지위계승기능 강화	변화계속
성역할 사회화기능	성차별적 사회화	성차별적 사회화 완화
가사노동	가사노동의 사회화·상품화 기계화 진행	변화계속 Home Automation보급

자료: 함인희,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11권, 제2호, 1993, p. 83.

다) 농촌가족 구성원의 지위역할과 사회관계

어느 사회집단에 소속되는 성원은 그의 지위에 따라서 어떤 역할, 즉 행동을 할 것이 기대되게 마련인데, 이것이 바로 역할기대(role expectation)가 되며, 이와 같이 기대된 역할을 실제로 다하는 데서 곤란을 경험하는 심리적 괴리상태를 역할갈등이라고 보고 있다.²⁰⁾

가족역할 구조는 가족관계의 하위적 개념으로 가족내외에 있어서의 인간관계를 말하므로 가족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인간적 반응행태 특성은 가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속의 개인적 역할이 주된 요인이 된다.

우리 나라의 농촌가족의 역할구조의 분석·음미는 우리 나라 가족의 특성, 즉 가족의 양적 분석, 구조적 분석 그리고 가족제도의 변천·추세 등의 선행적인 개관과 연결된다. 가족의 역할구조는 그 영역별로 부부결합,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직업

20) 상계서, p.352.

적 노동, 가계관리, 여가활동, 지역사회적 또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종교적 활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촌가족의 역할 구조를 살펴보면 있어서 개별적 성원의 속성도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는 세대, 성 그리고 서열 등을 들 수 있다.²¹⁾ 농촌가족내에서 세대는 25세 내지 35세 가량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촌가족의 경우 높은 세대가 가족 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상위세대가 60세가 넘는 등 일정시기가 지나면 다음세대로 이와 같은 권한이 위임승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 성(性)은 남존여비·남아선호 등의 예시적인 관념적 형태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의 경우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아직도 강하다. 그러나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향상되는 조짐이 보이며, 실제로 여성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성에 대한 지위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원은 가장, 주부, 자녀 그리고 방계가족원 등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사회에서 가족구성원 중 주부(부인)의 의식구조와 관련해 고찰하고 있으므로 주부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다.

주부는 가정의 부인으로서 과거에는 집안살림만을 맡고, 순종이라는 미덕하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생활적인 시장나들이를 포함해 부녀회 등 각종 사회적 참여가 갖게 되고, 가족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개입하거나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주부는 상품구입 행동에 영향력을 가지며, 가사에 대한 강한 의사결정권,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적절한 가치의 인정요구 등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신장되었다. 그러나 도시에 비하면 아직도 농촌가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계적 또는 모권적으로 부(父)지배의 정도가 더 크며, 형태는 핵가족이면서도 역할구조상으로는 핵가족의 구실을 못하는 등²²⁾의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의미에서 농촌주부는 더욱더 내면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²³⁾는 주부가 생활활동에 참여하는데서 비롯되는 권한의 배분으로 볼 수 있다.

21) 박부진, "한국농촌가족의 역할구조: 경기도 화성군 팔란면 구양리를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제1집, 1975, pp.3-62.

22) 이은숙,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근대화의 일면", 한국사회학, 제11집, 1977, pp.95-107.

23) 최신덕·김의순, "한국농촌주부의 역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총서, 이화여자대학교, 제26집, 1975, pp.215-254.

라) 전통적 농촌가족

한국의 전통적 농촌가족은 두 남녀의 혼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혈연적 유대를 계승하기 위한 특정 대가족 집단의 일정 시점의 구성단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대가족 집단은 일정한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 오면서 지역이동을 안하기 때문에 농촌가족은 혈연적 유대 뿐 아니라, 지연적 유대를 공유하는 동족조직의 하부단위로서의 위치를 가졌던 것이다.

전통적인 농촌가족의 중심적 가치는 가족주의였다는 점이다. 가족주의는 일찍이 Kulp에 의해,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을 맺어 결정되는 사회의 조직형태로 규정된 바 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보다 그 가족의 존속, 계승 및 번영이 우선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족 이데올로기로서 비단 농촌가족 뿐 아니라 전통적 한국가족 전체를 지배하였고, 지금도 그 이데올로기적 잔해가 남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전통적인 농촌가족은 가족주의를 배제하고는 그 본질이 설명될 수 없다. 철저한 가족주의 틀 안에서 그 가족집단의 번영을 위해 가족원은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극심한 희생도 감수한다. 그 보다는 부계혈통을 잇기 위한 부자관계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농가 성원들의 성별, 연령별 역할 구조가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하게 짜여짐은 말할 것도 없다.

전통적인 농촌가족은 그 자체가 독립적인 농업 생산단위였다. 이들은 영세 소농으로서 생계유지 농업을 경영하며, 가족노동과 마을의 공동체적 노동조직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을 한다. 그러므로 개별 농가는 두레와 같은 마을 공동 노동조직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농업생산 집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생활도 농업의 조건이나 그 생산사이클의 직접적 규제를 받으며 이루어진다. 동시에 농촌가족은 단일적인 소비집단이다.²⁴⁾

24)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1991, pp.237-238

마) 농촌가족의 문제와 변화추세

농촌사회가 변화되면서 특히 심화된 농촌 가족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일 것이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 잘못된 농정 등 기본적으로 자본주의하의 농업수탈에 기인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별거 가족원의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도시에서의 취학 혹은 취업을 위해 별거 자녀가 증가할 때 이는 분명히 가족의 해체현상이다.

농촌가족의 별거 가족들은 대개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하고 농촌의 본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한다. 별거가족이 학생인 경우 교육비 및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하는데 이는 농가경제 형편으로는 막대한 지출이 된다. 더욱이 취업을 위해 나와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취업준비금 혹은 실업시의 생계비 보조금 등 계속적으로 농촌자금의 도시유출 원인이 발생한다.

농가 가구주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농가를 이을 후계자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으나 자녀의 귀농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농촌에는 노인부부 가구 및 독신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빈곤선상에 놓여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연금이나 기타의 사회보장책이 없다.²⁵⁾

가족관계 만큼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관계는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사랑, 애정, 배려, 따뜻한 포용, 관심, 친밀감이 오고 가다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움, 갈등, 불만, 좌절, 소외감이 교차되기도 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각기 다른 성별과 다른 세대에 속하는 성원들이 가족이라는 유대로 묶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다음의 <표 II-9>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라 역할분업, 권력관계, 의사소통 유형 그리고 관계를 규정하는 가치관 및 규범 등으로 나누어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부터 민

25) 상계서, pp.242-243.

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부부관계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 강화와 더불어 남편 주도형에서 부부 의논형으로, 권위적인 지배, 복종관계에서 민주적인 상호의논 관계로,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중심의 우애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부부관계를 규정한 가치관도 변화되어 전통적인 이중 성윤리를 배격하고 평등한 성윤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의식도 증가되고 있고, 부부유별, 남존여비, 조강지처 등의 전통적 규범은 서서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부부간의 권력구조는 Devereux가 그의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위구조, 즉 남편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남편 중심형, 아내가 중심이 되는 아내 중심형, 업무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양권형, 그리고 양편이 평등하게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평등형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표 II-9> 가족관계의 변화와 전망

가족관계	지난 한 세대의 가족변화내용	미래의 가족 변화 전망
부부관계	역할분업:엄격한 성역할 분업⇒남편의성역할 증대 권력관계:남편주도형⇒부부의논형 의사소통:권위적 유형⇒민주적 유형 부부관계:제도적 관계⇒우애적 관계 부모·자녀중심⇒부부중심 가치관: 이중 성윤리⇒평등 성윤리 이혼불허⇒이혼 허용 전통적 가족가치관 약화	성역할 공유 진행 계속변화 새로운 가족 가치관정립
부모-자녀관계	권력관계:부모 결정형⇒상호의논형 부모자녀관계:권위주의적⇒역수직 관계 (지위권위⇒개인권위) 성차별적⇒성차별적 관계 약화	민주적 관계 성차별의 극복
노부모-자녀관계	지배·복종관계⇒소외·부담관계 노인부양의식 약화 노후의존도 약화	상호의존/대등관계

자료: 함인희,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11권, 제2호, 1993, p.85.

그리고 한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성역할 분업양식의 변화이다. 오늘날의 성역

할 분업구조는 소위 신전통주의(new-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by gender)라 하여 여성에게는 자녀양육 및 가사라는 고유한 여성역할에 더하여 사회적 역할이 제 2의 역할로 부가되고, 남성에게는 경제 부양자로서의 일차적 역할에 더하여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부가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부가를 “신전통주의”라 한다.²⁶⁾

부모와 자녀관계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낮아지고 우리 나라 특유의 자녀 중심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맞물려 오히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소위 “역수직 관계”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부모의 권위도 지위 자체에 부여된 지위적 권위(positional authority)로부터 부모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개인적 권위(personal authority)로 변화해 가고 있다. 더욱이 “장유유서, 엄부자모”식의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악화된 자리에 이를 대체할 만한 가족규범이 새로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부모와 자녀관계는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노부모와 자녀관계도 사회변화와 가족변화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는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었던 노후에 대한 의존이 이제는 서로에게 소외감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관계로 변화하였다.²⁷⁾

이상의 변화와 함께 농촌가족의 기능면에서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가장의 절대 권위적인 권력의 약화이다. 즉 가족은 동반자적인 민주적 집단으로 근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민주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의사결정 유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족성원 중의 여성의 지위가 여권적인 차원에서 신장되고 있는 농촌가족 기능상의 변화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예속적 관념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26) 함인희,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11권, 제2호, 1993,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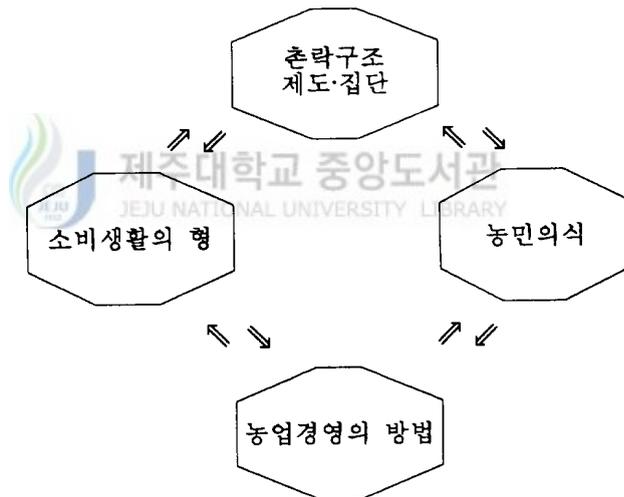
27) 한국여성개발원,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개원 10 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1993, pp.84-86.

28) 왕인근(II), 전계서, p.372.

바. 농촌생활 변화

농촌생활의 전개는 생산기능을 하는 농업생산 활동과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소비생활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이 두개의 기본적인 생활측면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지연·혈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집단이나 결사체에 의해 보완된다. 농민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집단과 제도와의 교섭을 통해 의식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일정한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 의식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정한 유형의 생활형태와 소비형태를 갖게 된다. 즉 농촌의 생활은 생산과 소비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그것의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조직생활이 전개되며 이들 생산·소비 및 조직활동은 농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에 의해 규정받게 된다. 이상과 같은 농민생활의 4대 영역을 도식화하면 <도 II-7>과 같다.

<도 II-7> 농민생활의 4대 영역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사회구조변화와 농협, 1986, p.121.

2) 농촌인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1) 가치관과 의식의 개념

가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작용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가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가치가 다르면 태도나 행동도 다르기 마련이고 가치체계가 비슷하면 행동도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가치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은 이상적인 최종상태나 개인의 이상적인 궁극적 양식 또는 행동양식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나타내는 추상적 생각이다. 따라서 가치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넘어서 행동이나 판단을 이끄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⁹⁾

Frued는 인간의 정신구조를 의식(consciousness), 전의식(pre-consciousness) 그리고 무의식(unconsciousness)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의식은 나타난 현상에 대한 느낌이며, 개인은 의식에 의해서 현실과 관계를 가지고 현실에 입각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무의식은 의식작용 이외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의식세계이며, 의식은 기억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기억할 수 없다. 무의식은 사회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충동 등이 의식속에 떠오르지 못하고 억압되어 무의식속에 저장된 것이다. 그러나 자각상태에서 의식에 나타나지는 못해도 연상에 의해서 의식속에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심적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의식으로 재현되는 것을 전의식이라고 부른다.³⁰⁾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치관은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는 일련의 상호관련된 평가적 태도의 총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가치와 가치관은 동의적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³¹⁾ 또한 가치의식 또는 의식은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공연적 또는 암묵적인 판단기준의 총체가 되므로 가치와 가치의식의 개념은 동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치, 의식, 가치관 등은 동일한 개념이며, 이들 개념의 핵심은 이 개념들이 인간의 내부에서 외부적인 대상을 인정하거나 행동의 방향을

29) Rokeach, Milton,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r: Josey-Bass, Inc. 1968. p.155.

30) 김명훈·정영윤, *심리학개론*, 박영사, 1993, pp.241-242.

31) 왕인근(II), *전개서*, p.738.

결정하는데 큰 몫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다만 가치는 태도와 행동과정 저변에 깔려있는 바람직한 최종상태에 관한 일반적 신념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태도는 특정 상황이나 대상을 향한 인지적이고 감정적 지향이라 할 수 있고, 행동은 한 사람의 기본적 가치나 태도의 표현³²⁾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농촌여성의 의식구조는 농촌여성이 가족, 친족,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일련의 평가적 태도의 총체 또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2) 농촌인의 의식구조

한 지역단위의 문화는 그 지역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성격 또는 의식구조를 형성한다. 의식이란 심리학상 감각, 지각, 감정, 표상, 정서, 의욕 등 거의 심적 체험의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³³⁾ 따라서 의식구조란 심적 체험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은 모두 보고, 듣고, 느끼며 접해 온 자신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의식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환경이 유사한 경우 의식구조도 유사할 가능성이 환경이 서로 달랐던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인들은 농촌사회라는 공통분모하에서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 농촌인들의 의식구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경동은 전통주의, 권위주의, 교육의 중시, 가족주의, 경제적 재부(財富), 안정 등으로 그 특성을 표현하였고, 홍승직은 가족관, 경제관, 정치관, 사회관 그리고 종교관으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고영복은 토지에의 애착성, 가족 중심주의, 전통성 그리고 미신성 따위를 들어 농민의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연구에서는 사회발전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³⁴⁾

개인 또는 집단이 지니고 있는 일련의 상호 관련적인 평가적 태도의 총체가 가치

32) Boris W.Becker and Patrick E. Connor., "Personal of the Heavy User of Mass Media",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October, 1981, p.37.

33) 교육도서, 교육 세계백과대사전, 제15권, 1990, p.264.

34) 정지웅(II),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pp.339-341.

관이므로 이는 가치의식·가치지향·가치-태도체계 그리고 가치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가치관이 근대화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규명·정립되고 있다.

I.T. Sanders와 R.Tedfield, E.M.Rogers 등의 외국학자의 소론과, 김경동, 홍승직, 고영복, 황인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소론들이 그 예인데 이하에서 간단히 살펴본다.

Sanders³⁵⁾는 농촌인들의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족주의 - 개인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이익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며 가족과 친족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서구에 있어서는 가족주의가 기독교의 윤리에서 기인되었고, 동양에 있어서는 유교의 “효”사상에서 기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둘째, 토지신성관 - 농민은 토지로부터 생활의 주된 자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인간의 어머니이며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갖는 것이며, 일반적인 재산 또는 경제재화 이상으로 신성한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보수주의 -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반항의식을 가지며 전통적인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보수주의이다. 농민의 보수성은 경제구조의 미분화와 농민간의 복합적 사회관계로 말미암아 전통의 유지가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자연에의 순종 - 농민들은 농업의 특성 때문에 주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 농민은 자연에 대한 높은 의존심과 자연과의 유대감을 갖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존재를 대자연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사회의 모든 일들을 자연의 섭리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다섯째, 회박한 시간관념 - 농민이 자연에 밀착되어 있는 한 자연의 리듬 속에서의 시간적 관념이 형성된다. 따라서 농민들에게는 정확한 시간약속이나 시간단위의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인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며, 효율성의 기준이 되지만 농민들에게는 시간이 인간을 속박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

35) Irwin T. Sanders, *Rural Society*, Prentice-Hall, 1977, pp.82-86.

한다.

여섯째, 숙명론 - 농민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교적 짙은 숙명론의 경향은 농경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초자연주의 사상이나 다신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개혁이나 변동에 큰 저해요인 또는 장애물이 된다.

Tedfield³⁶⁾는 농촌인들의 의식구조를 다분히 이념적이며 고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즉 그는 농촌의 사회적 성격을 ① 토지에 대한 친근적 및 외경적 태도, ② 농업 노동은 좋고 사업은 나쁘다는 사고, ③ 생산적 노동의 찬미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Rogers³⁷⁾는 전통적 규범하의 사회체계 또는 전통적 사회체계의 일반적 특징을 범주화하고 있다. 첫째, 사회변동에 호의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덜되어 있으며, 둘째로 기술적으로 덜 발달되었고, 셋째로 문맹자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넷째로, 친절이라든가 환대를 베푸는 것과 같은 1차적이며 정의(情誼)적 사회관계와 정서적 인간관계를 주축으로 한 사회체계의 현상유지가 사회적으로 촉진되고 있다. 다섯째로 외부세계, 즉 체계 외부와의 전달매개가 거의 없는데, 교통시설의 미미함과 이와 같은 외부 세계와의 전달매개의 부족은 전통적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을 점점 더 고립시키게 마련이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 특히 외부세계 구성원들의 처지에 자기를 놓고 볼 수 있는 감정이입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전통적 체계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인정하려고도 않으며 또한 학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Rogers는 소농민적 하위문화의 중심적 요인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호적 불신, 혁신성의 결여, 숙명론, 낮은 수준의 포부, 연대(延帶)만족의 결여, 제한적인 시간적 시각, 가족주의, 정부당국에의 의지성, 지역지향성 그리고 감정이입의 결여 등을 언급하였다.

김경동은 그의 실증적 조사연구에서 농촌의 가치지향을 여섯 범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즉, 전통주의, 권위주의, 교육의 중시, 가족주의, 경제적 재부 그리고 안정 등이다.

36) Robert Tedfield, "The Folk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52, 1947, pp.293-308.

37)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Free Press, 1962, pp.59-62.

첫째, 전통주의 - 우리 나라 농촌의 가치지향을 시간적 차원과 판단기준의 차원에서 보면 전통주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즉 농촌인들은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비합리와 전통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말이다.

둘째, 권위주의 - 이는 전통적 인간 관계의 한 전형이다. 오늘날 근대적인 인간 관계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평등한 관계가 위주로 되고 있는데 반하여 과거의 인간 관계는 권위주의적인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인간 관계는 남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 장유노소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내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적 내지 계층적 관계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셋째, 교육의 중시 - 유교의 가치지향에서도 중요한 차원인 동시에 근대 서구사회에서도 중시되는 가치관이다. 농촌인들은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가족주의 - 가족주의는 집단 중에서 가족이 중시된다는 것과 혈연에 의한 집단이 생활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재부 - 이것은 농촌인들이 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지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안정 - 어느 사회나 안정을 바라지만 농촌인들은 자녀의 직업에 대한 기대나 희망에서 비교적 안정된 공무원에 가장 많이 원하거나 또는 안정된 농업을 바라고 있다.

홍승직은 농촌인과 도시인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한 그의 연구에서 8개 항목의 가족관, 9개 항목의 경제관, 9개 항목의 정치관, 9개 항목의 사회관 그리고 7개 항목의 종교관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결과 나타난 가족관은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는 가족으로 가문을 몹시 존중하며, 특히 자녀의 결혼시에는 개인의 자격보다는 가문과 궁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가 결혼대상자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가치관이다. 경제적 가치관은 친척을 돕거나 물질적 보수보다는 존경에 더 관심이 많으며, 재산의 증대보다는 보존에 그리고 능력보다는 혈연, 지연 등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가치관이다. 정치적 가치관은 관존민비 사상이 강해서 모든 것이 권 위주이며 국민의 태도에 있어 통제지향적인 권위주의가 지배하며, 국가발전의 낙후성은 물론 천재로 인한 피해까지도 정치의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치관이다.

사회적 가치관은 여자는 항상 남자보다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횡적인 관계보다는 종적인 관계가 지배적이어서 유교적인 장유유서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교적 가치관은 세계관, 인생관, 내세관, 신앙관, 종교역할관, 종교선택관 그리고 기독교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종교적 속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다. 한국인은 정체적인 동양종교의 속성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기독교에 대한 호감은 갖고 있는 편이다.

고영복은 토지에의 애착성, 가족 중심주의, 전통성 그리고 미신성 따위를 들어 농민의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황인정은 농촌 새마을운동의 체계적 평가연구에서 농민의 가치관 중에서 발전적인 가치성향 측면과, 전통적 가치성향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규명·파악하였다. 가치성향은 변동지향성, 미래지향성, 성취지향성 그리고 합리성의 측면을 측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비교하였다. 농민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기보다는 발전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나 많은 농민은 농촌에 있어서의 발전지향을 기피하고 도시의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연구에서는 사회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여기서 긍정적 측면은 첫째, 가족의 일반적 사회생활 국면에서 합리화·도시화·핵가족화가 촉진되고 있다. 둘째, 영농부문에 있어서 발전 지향적 가치관이 크게 증진되어 가고 있다. 셋째, 농촌지도자와 농촌부녀자들의 역할에 대한 선호는 귀속적인 것으로부터 성취적 또는 업적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국가의지에 대한 높은 귀속의식을 보였다. 다섯째, 전통적인 충·효 그리고 관혼상제례 등의 관습적 문화항목 및 복합은 취사선택적이다.

또한 부정적 측면은 첫째, 가족내의 인간관계에서 장자우위,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둘째,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불만이 크며, 관촌천농사상이 현저하다. 셋째, 도시에 대한 선호 및 동경이 지배적이다. 넷째, 표면적으로는 내부적인 목적·협동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의 영농활동상의 자금조달이나 기술지원같은 면에서는 크게 외부 의존적이어서 가치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3) 농촌문화와 농촌인 의식구조와의 관계

어떤 한 문화는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성격이나 가치관과 같은 의식구조를 갖도록 영향을 준다. 목축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기운이 센 짐승을 다루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가치관도 보다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경향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동양인의 대부분은 농경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존하고 소극적이며 평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성격 또는 의식구조는 그 사회의 문화에 적응하고 주어진 가치관 속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께 추구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그러한 문화와 관련된 의식구조는 크게 발전을 지향하는 의식구조와 발전을 저해하여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의 농촌문화에서 형성된 의식구조 중에는 앞으로 더욱 조장시킬 만한 발전 지향적인 의식구조가 있는데 ①자연의 이치(순리)를 숭상하는 마음, ②정직성, ③은고지신의 생활태도, ④풍부한 감정, ⑤겸손의 미덕 ⑥근면성, ⑦검소한 생활관, ⑧강한 협동의식 등을 들 수 있다.³⁸⁾

첫째, 자연의 이치에 대한 순종 - 농민들은 모든 세상사가 자연의 섭리, 즉 순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종교적 신앙심과 정치적 권력에 대한 순응의 기본적 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등글게 살아가자”거나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을 즐겨 하는 것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직성 (농심) - 농심이란 정직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농민의 마음으로서 이는 영농생활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나온 그들의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정직성은 오늘날 산업발전에 있어서 기본요건인 기독교적 윤리(protestantism)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은고지신의 생활태도 - 농촌의 문화는 먼저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자는 전통중시의 의식을 기대한다. 전통은 옛 것을 지키고 새 것은 부인하는 보수성과는 다르며 조상의 얼과 슬기를 앞으로의 발전과 조화시켜 실리를 추구하자는 생활태

38) 정지웅(II), 전계서, pp.339-343.

도로서 매우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넷째, 풍부한 감정 - 우리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점차 상실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인간성 및 애정은 농촌인들의 풍부한 감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효도, 자녀사랑, 형제우애 등에서 나타나며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섯째, 겸손의 미덕 - 농촌주민들이 다소 모자라 보이고 촌티를 벗지 못하는 점은 그들 의식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겸손함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겸손은 타인의 존중과 인정에 의한 인화단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근면성 - 우리 농촌인들의 부지런함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한 행동특성이며 이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한 것임은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일곱째, 검소한 생활관 - 도시와 비교하여 볼 때 농촌주민들의 생활에서 검소와 겸약을 강조하는 가치와 태도는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소한 생활은 경제적 빈곤 때문에 나온 태도이기도 하겠지만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생활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다고 단정하지 못하거나 불결한 것과 상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여덟째, 강한 협동 의식 - 영농이나 지역공동체적 생활의 특성으로 보아 농촌인들은 서로 이웃과 협동하지 않고서는 잘 적응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강한 협동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며, 이러한 협동 의식은 새마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다.

또한 농촌인들이 형성하여 온 문화 속에서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그들을 침체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①숙명론적 생활관, ②개인의 능력보다 제3의 힘을 기대하는 의뢰심, ③회박한 시간관념, ④모험심의 결여-무사안일주의, ⑤남아선호관념, ⑥지나친 가족주의 등을 들 수 있다.³⁹⁾

첫째, 숙명론적 생활관 - 농촌인들은 특히 자기의 운명을 팔자(사주)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는 숙명론적 생활관이 강하여 성취동기가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

39) 상계서, pp.341-343.

다. 새마을운동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거나 “하면 된다”는 신념을 불러일으킨 점이 많으나 성취의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의 능력보다 다른 힘에 대한 의뢰심 -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능력보다 가문에 의하여 한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농촌인들의 의타심이나 다른 힘에 의하여 자기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대사상과 같은 의식이 많이 있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을 믿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힘에 의존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농촌문화에서 자연의 힘에 의존하여 생업을 유지하여 온 탓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일제시대에 형성된 습성이 더욱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자조와 자주 및 자립의식을 높이도록 의식구조를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회박한 시간관념 - 우리 나라는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하여 시간관념이 강한 편이지만 농촌인들은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인에 비해 그 관념이 회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던 것이며, 일요일을 따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거리나 집안일 및 동네일 또는 명절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도 하는 비정기적 생활을 하여 왔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넷째, 모험심의 결여 - 농경문화의 특성이 전적인 식물재배에 의하여 구하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의식이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소극적 성격이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도서지방에서도 고기잡이 보다 농사짓기를 더 즐기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러한 소극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소극성은 발전적 도전에 역행하는 의식이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남아선호관념 - 농촌의 문화는 여성의 비하와 남자우선의 남아선호관념이 매우 강하여 인구통제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갑자기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란 쉽지 않으나, 어느 정도 그들의 지위를 높이고, 개발에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여섯째, 지나친 가족주의 - 농촌생활의 가족중심적 성격도 혈연중심의 보수적 사회를 지속화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각 개인의 가문이나 일가친척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길러 발전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내의 화

목이나 친척간의 우애나 교제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 그러한 가족주의적 감정을 모든 사람과의 교제에서도 한껏 발휘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농촌사회의 가치관은 집합체 지향적인 귀속본위의 가치관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즉,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지향속에 함몰되어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가치나 업적위주의 평가와 같은 근대적인 가치관이 미발달된 상태에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농촌사회가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로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사회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의 일부분으로 화폐경제 속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지향하는 의식이 확대되어 가게 된다.

그러나 사회구조와 농촌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의식의 변화는 항상 동일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지체(lag)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의 변화 가운데는 기술이나 물질적인 요소들의 변화가 먼저 나타나게 되며, 의식의 변화가 가장 뒤쳐져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관의 정립이 뒤쳐지면서 사회구조와 의식의 괴리현상과 함께 여러 가치관의 부조화 현상도 수반되는 것이다.⁴⁰⁾



2. 農村女性의 意識構造

1) 농촌여성의 개념

농촌여성은 농가이든 비농가이든 간에 농촌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을 지칭한다. 농촌여성은 농업생산 노동참여, 농업경영참여 등을 참고하여 잠정적으로 농가주부, 농사보조자 및 여성농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¹⁾

첫번째의 농가주부는 문자 그대로 주부역할만을 주로 하며, 집안의 농업생산에는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I),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 1984, p.17.

41) 김주숙, 한국 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 1994, pp.213-214.

거의 관여하지 않는 여성이다. 신혼의 부인 혹은 유아가 딸린 부인이 이에 해당된다. 또는 가정에 농업노동력이 충분하거나 완벽한 기계화로 인해 부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의 부인, 혹은 농사에 필요한 모든 농업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부농의 부인도 해당될 수 있다. 여기서 예시한 농가부인은 일종의 전업주부로서 농가에서 극히 그 비율이 적다.

두번째의 농사보조자는 가사를 하면서 농사일도 하는 부인들이다. 대개는 남편이 농가경영주가 되며 부인은 간헐적으로 농사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때 부인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기집 농사의 전반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단지 남편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많은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세번째 유형은 부인이 직접 농가경영주인 경우, 혹은 경영주는 아니더라도 가사는 거의 하지 않거나 혹은 하더라도 동시에 전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부인들이다. 이들에게 농사는 전업직업이며 이들이 가사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도시 취업여성의 가사노동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경우이다. 자녀가 유아기를 벗어난 빈·소농의 부인들, 장년의 빈곤 농가부인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위의 분류 중 세번째 여성들은 여성농민이라고 쉽게 규정될 수 있다. 두번째의 통칭 농사보조자로 불리는 여성들도 분명히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며 가족노동자로서 산업별분포에서 농림수산부문 취업자로 계산될 것이다. 첫번째 분류의 농촌여성도 농가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농업 생산활동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여기서는 이념적으로 농가주부로 규정할 뿐이다.

2) 농촌여성의 역할과 문제점

(1) 역할의 개념

사회구성원은 그들이 참여하는 공동체내에서 행동해야할 특별한 역할이 있다. 사회구조는 역할들이 모여 체계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은행원이 고객을 무시한 채 친구와 잡담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규범에 위반된 행동이 되는 바와 같이 규범은 의무적인 행동을 말하며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해 준다. 그러면 역할이란 무엇인가? 역할은 집단활동을 하기 위해 각 개

인이 맡아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다.⁴²⁾

(2) 농촌여성의 역할

인간이 생활하고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 즉 더러워진 옷을 빨아 입고, 다림질하고, 꿰매고, 식품을 사서 요리하고, 사용한 식기들을 설거지하고, 집을 쓸고, 닦고 하는 등의 일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미래사회의 성원으로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같은 일들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재생산해 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해 준다. 이같이 가정에서 행해지는 노동력의 일상적인 재생산 활동은 가사노동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존속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 직업활동 등 모든 생산노동의 기본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은 <표 II-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분담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0> 가사노동의 분담실태 학교 중앙도서관

일의 종류	아내투여시간비율(%)	남편참여비율(%)	타인참여비율(%)
식사·설거지	95.6	26.6	9.2
세탁	95.4	12.6	10.4
청소	90.6	29.5	10.0
시장보기	94.0	17.0	4.4
생활비관리	97.0	1.7	1.7
자녀들보기	84.9	41.5	7.2
자녀학교, 병원가기	89.4	11.7	2.6
자녀학습지도	85.3	26.3	2.6
은행출입	83.7	20.2	1.4

자료: 박민자,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p. 55.

42) 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1987, p.19.

지금까지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학문적 편향은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여성들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들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⁴³⁾

가사노동은 애정과 봉사에서 나오는 여성의 자연스럽고 천성적인 일이라기 보다는 육체적, 심리적, 감성적으로 다양성과 전체성, 세심성을 요구하는 힘든 일일 뿐 아니라 시간 소모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주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억압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상당수의 여성이 가사노동을 취업보다 선호하며 여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주부들은 가사노동의 단조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싫어하는 반면, 가사노동이 부여하는 자율성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대해 보람된 일이지만, 단순 반복적 노동으로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주부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⁴⁴⁾

사회문화와 개인의 역할은 상호작용 관계를 가지며 변화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남녀역할 역시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형화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에 따라 구체적 모습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각 사회부문에서 새로운 남녀 역할의 가치관에 입각한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 즉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역할은 다음과 같이 분류, 발전될 수 있다.⁴⁵⁾

- ① 역할 선택형 :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에서 벗어나 남녀 공히 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 중 자유롭게 역할을 선택하는 유형
- ② 이중역할 수행형으로 가사 협업형 : 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사역할의 책임도 공유하는 유형
- ③ 이중역할 수행형으로 가사 전담형 : 남녀 모두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사역할은 여성이 전담하는 유형
- ④ 전통적 역할 : 남성은 사회적 역할, 여성은 가정적 역할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식을 고수하는 유형

43) 유희정의, *여성과 한국사회*, 오름시스템(주), 1993, pp.201-201.

44) 상계서, p.215.

45) 김재인, "여성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 *여성연구*, 제11권, 제2호, 대명문화사, 1993, p.53.

위 네가지 역할 유형은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도 하나 주로 사회발전 과정에 따라 유형 ④에서 유형 ①로 발전해 가면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발전적인 유형으로는 21세기의 사회에서 제시될 역할 선택형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이다. 어떠한 일을 가지고 싶어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회, 학교, 가정, 개인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촌여성의 역할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가사담당자로서의 농촌주부의 역할, 둘째는 농업생산에 참여하고 기타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활동가로서의 역할, 셋째는 지역사회 활동 및 기타 가외활동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다.

(3) 농촌여성의 문제점

농촌여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가사담당자, 경제활동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모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도시의 주부들에 비해 역할이 많다. 역할이 많을 뿐 아니라 역할내용에 있어서도 일견 경제적 생산자로서, 사회적 시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이 인류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의 발전에 참여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성별 노동분업을 들 수 있다.⁴⁷⁾ 여성의 출산 기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성별 노동분업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남녀를 배타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남녀간의 불평등 구조를 초래하였다. 곧 남성에게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생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구조 속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에게는 사적영역에 속하는 가사 및 자녀양육을 담당시킴으로써 각 성에 고유한 역할로 부과하는 동시에 공공영역에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성은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성별 노동분업은 여성의 공공영역에서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거

46) 김주숙, 전계서, p.95.

47) 한정자, 현대여성해방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pp.61-81.

나,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여성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의하여 하위직에 머물거나 동일가치의 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전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치 못함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UN여성 10년 사업평가 보고서”에서도 여성발전의 저해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임무로 여겨졌던 일들을 남성에게 할당하고,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회 공공영역에 여성을 참여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랜세월을 두고 내려온 전통적 성별분업에 따른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책임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성역할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시키는데 도움이 될만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화하는데 많은 방해가 받고 있다.” 일부 여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은 직장과 사회에서 여전히 종속적인 존재이고,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더욱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⁴⁸⁾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과 사회적 생산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성의 이중역할 수행에 따르는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수반되지 않고 있다.

여성을 발전과정에서 통합시키려는 정책적 의지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여성의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곧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됨으로써 남성위주의 발전 정책이 채택되고, 여성의 이해관계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여성문제의 해결은 정책상의 우선순위에서 하위를 차지하게 됨은 물론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사회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제도적, 문화적, 기술적 자원을 지원하는데도 똑같이 반영되어 여성을 발전과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둔화시키고

48) 한국여성개발원, 전계서, pp.5-6.

있다.

국가나 사회발전의 일차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만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발전은 궁극적으로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천과정에서도 여성이 일익을 담당해야 하며, 발전의 결과에 있어서도 남녀가 동등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農村女性의 意識에 대한 先行研究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971년 윤근섭⁴⁹⁾은 농민의 전통적 가치관과 몇 가지의 연관적인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상호관계를 전북 농촌지역에서 태도척도에 의하여 규명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첫째, 봉건적인 신분적 서열이 붕괴되고 대부분의 농민이 농지개혁 이후에 자작농으로 전환되어 농민들의 소유경지 면적의 많고 적음은 교육의 유무만큼 농민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기본적 요인이 되지 못한다.

둘째, 근대적인 공식적 집단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음에 따라 농민들의 전통적인 태도 내지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때, 농민의 대사회적인 접촉이 태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관습과 전통에 동조함으로써 귀속감과 안정감을 보장받는다고 느끼는 농민이 많으며, 전업농가의 경영주는 타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전통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교통이나 통신이 미발달하고 외부와 그다지 접촉이 많지 않는 농촌에서는 대중매체와의 접촉이 농민의 태도와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교육수준과 저소득층의 농민은 이와 같은 대중매체에의 노출이 제약적이다.

농촌주민의 무규범성, 즉 아노미상태를 파악해 본 연구⁵⁰⁾에서는 일반주민들 중

49) 윤근섭, "태도척도에 의한 농민의 전통적 가치관과 몇가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제2집, 1971, pp.71-85.

80% 가량이 연줄이나 배경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이 있어도 출세할 수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사회제도와 규범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77%가 불만스러움을 나타냈고, 이러한 경향은 이장 등 지도자급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980년에 농촌지역은 가치관의 문제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적일 염려는 없다는 조사결과를 확인한 안병만⁵¹⁾ 등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 및 농촌지도자들의 가치관은 놀라울 정도로 근대화되어 있다. 안락 및 현실집착보다는 성취 및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미신보다는 과학, 운명보다는 의지를 중요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미신에 대한 애착현상은 지도자의 계몽에 의해 타파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농촌지도자의 지도직에 대한 논리관은 타산지향적인 것이 희생위주적인 것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지도자의 역할관은 결정권자로서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위치로 본 역할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넷째, 지도자로서의 지도유형, 곧 지도하는 스타일은 고전적이지만 자유방임형·권위형·민주형으로 나누고 이를 회의시·결정시·행동시로 구분하여 어느 유형이 가장 적합한가를 살펴보았다.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를 단기간에 걸쳐 파악한 한 연구⁵²⁾에서는 농촌생활이나 농업종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생활형편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중·대농이 영세농보다도 낮고 연령별로는 노년층이 젊은층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농업을 권장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노년층이 높았으며 농촌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도시에 나가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20대와 50·6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50) 김동일, "농촌주민의 사회관과 대정부태도의 사회학적 분석", 농촌경제, 제3권, 제3호, 1980, pp.10-17.

51) 안병만 외, "농촌지도자의 가치관·역할 및 지도유형과 새마을 운동의 발전방향", 새마을운동연구논총, 제6집, 제2권, 새마을연구회, 1981, pp.301-331.

52) 최연우·최익수, "농민의 의식구조·변화", 농촌경제, 제4권, 제1호, 1981, pp.132-141.

1981년 선도농가 및 일반농가 등 총 1,168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업에 대한 사회경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⁵³⁾

· 농촌생활이 10년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보는 이는 전체의 88.8%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25% 가량 되었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태도는 80%가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해 63.7%가 불만이었으나 63.7%가 역시 계속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농민들은 국가가 잘되어야 자기도 잘 된다고 의식하는 응답자가 81.2%로 국가의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⁵⁴⁾에서는 농촌부녀자의 의식구조를 크게 사회관과 농촌, 농업관으로 살펴보았는데 사회관을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문이나 연줄, 재산과 같은 귀속적인(ascribed) 요인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획득적(achieved)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근대적인 의식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약간 더 많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47.6%, 여성의 더욱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는 응답이 5.9%로 여성들 자신을 생산적인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연령이 젊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사회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업만족도, 농촌의 전망, 농업정책 요구사항을 보면,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43.3%가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19.1%가 불만, 33.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여 농업에 대한 명확한 불만을 표시한 부녀자는 많지 않았으나, 농업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 농가 역시 반을 넘지 못해서 앞으로의 농업여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부녀자의 역할구조에서는 농촌부녀자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노동의 영역에

53) 권원달, "한국농민의 사회·경제관", 정경문화, 제206호, 1982, pp.142-159.

54) 농업협동조합중앙회(I), 전계서, pp.177-187.

서의 문제점은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이 강도면에서 과중하며, 여성의 농업노동참여는 이미 보편화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부녀자 자신은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또한 부녀자의 농기계 사용경험은 아직 희박한 상태이며, 농기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고, 부녀자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는 소득증대 사업, 생활개선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부녀자의 의사결정 참여에서는 가사에 관한 의사결정 가운데 전반적인 금전관리와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은 남편의 결정권이 높은 반면,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남편주도적 상의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사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부녀자가 주도권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 참여자로서의 부녀자의 영향력은 매우 높게 나타나서, 부녀자의 발언권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전국 130개 시군, 140개 단협관내 농촌부녀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로서 역사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여성이 사회의 핵심이 되어온 제주지역의 농촌부녀자들의 의식 및 역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농촌사회구조와 관련한 여러 행태, 즉 전통적 태도, 대중매체에의 노출정도, 사회제도와 규범,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농업관·사회관, 농업만족도, 농촌의 전망, 농업정책 요구사항, 농촌부녀자의 역할구조 등으로서,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의식구조나 가치관하에서 농업사회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환경 및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나 농촌사회 구조상의 성별 등 세부적인 단일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해 온 사례가 충분치 못한 문제점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나 환경에 동조하거나 적응해 나감으로써 느리게 변화해 가는 것이므로 단기에 걸쳐 의식이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며, 연구당시의 의식구조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동일한 연구가 특정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의식의 변화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假說의 設定과 調査方法

1. 假說의 設定 및 設問의 構成

1) 가설의 설정

농촌여성들의 사회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그들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역할도 바뀌어 가고 있다. 1992년에 이루어졌던 한 연구⁵⁵⁾의 결과를 보면 전통적 가족의식의 평균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3.530으로 나타나 남성중심의 성차별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첫째,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을 기반으로 한 농촌사회에서 섬기는 입장인 젊은층의 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둘째, 양자를 해서라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강한 「家」의 승계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친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성향은 농촌여성의 각 상황, 즉 연령이나 학력,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 의식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농촌여성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 의식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 가설 1)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가설 2)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친족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가설 3)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여성들의 가정 밖에서의 사회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었던 전통적인 사회에

55)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pp.35-37.

서는 그들의 활동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참여의식 또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농촌여성의 사회진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설문함으로써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선행연구⁵⁶⁾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는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높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또한 학력수준에 따라 사회진출에 대한 견해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 견해가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견해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나 학력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도 사회진출 의식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들 변수에 따라 농촌여성의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번째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진출 의식은 다르다.

재정담당, 경작작물, 농산물판매, 자녀교육, 자녀혼사, 식료품 및 옷구입, 냉장고 등 큰 살림, 집수리 등의 모든 가사노동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담당하는 역할을 몇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남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가사와 아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가사 그리고 결정의 영향력에 큰 관계없이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사 등으로 볼 수 있다.

재정에 관련하여 거액의 경우는 남편이 상당히 일방적이고, 소액의 경우는 아내가 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하며, 생활물자의 구입에 있어서는 내구재는 서로 상의하고 일상용품은 아내가 주로 결정하고, 자녀교육은 남편이 주가 되어 상의하거나 남편의 독단적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농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경작작물 선택과 농산물 판매에 대해 모두 남편이 의사결정에 주도적이다.⁵⁷⁾

56) 농업협동조합중앙회(I), 전개서, pp.22-24.

57) 상계서, pp.110-130.

농촌여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가사활동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한 연령이나 학력,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도 의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위해 다음과 같이 5번째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재정 및 가정내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여성의 의식은 서로 다르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도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정부의 농정에 대한 불신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권익이 철저하게 보장될 때 농정에 대한 농민의식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농업정책이 현실의 농업실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67.6%)이 강하고, 농민의료보험제도는 잘 운영되지 못하며(51.5%), 농촌지도소 등의 농업기술 보급이 상당히 잘 되고 있으며(48.9%), 농협 등의 농민단체는 도움이 되고(65.2%), 농업정책에 대한 반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4.5%)는 경향이 짙다.⁵⁸⁾

이상과 같은 결과에 대하여 농촌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 등의 변수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6번째 가설을 세웠다.

가설 6)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농정의식은 서로 다르다.

농업사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보통수준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다.⁵⁹⁾ 특히 농촌과 도시간의 비교 시에는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일손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불안정하고, 또는 노동이

58) 한국농촌사회학회, 전계서, pp.181-200.

59) 상계서, p.92.

과다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다른 연구⁶⁰⁾에서는 농촌여성들이 농업에 대해 가지는 만족도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높고, 1,500평 미만의 영세농층과 같이 영농규모가 작은 경우 불만은 크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7)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서로 다르다.

2) 설문 의 구성

설문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연령, 학력, 생활수준, 소유토지 면적 등 4개 문항, 가족과 관련된 의식구조 4개문항, 친족과 관련된 의식구조 3개문항, 공동체와 관련된 의식구조 2개문항, 여성의 사회진출 의식 1개문항, 농사의 만족도 1개 문항, 가정내의 역할 1개문항, 가정 및 가사활동의 난이도 3개문항, 의사결정과 관련된 역할 8개문항, 농정에 대한 의견 6개문항 그리고 희망하는 교육내용 및 소유농기계, 영농관련 정보원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의식구조는 ①장남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 ②시대가 변했더라도 가족의 대표는 남자이다. ③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은 주로 남편의 잘못일 경우가 많다. ④집안의 대는 양자를 해서라도 이어야 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친족에 대한 의식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①고향을 떠나 사는 자녀는 바쁜 일이 있더라도 제사나 친족행사에는 참여해야 한다. ②나에게 이롭지만 가문이나 친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이웃 및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설문을 이용하였으며, 공동체에 대한 의식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①마을행사에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참석해야 한다. ②이웃이 상을 당했으면 자신의 일을 접어 두고라도 도와야 한다는 설문을 이용하였다.

60) 농업협동조합중앙회(I), 전개서, pp.30-33.

이상의 설문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설문문의 구성

구분	변수내용	문항수	변수번호	비고
인구통계관련	연령	1	V12	
	학력	1	V13	
	생활수준	1	V14	
	소유농지	1	V15	
의식구조관련	가족	4	V1_1~V1_4	5점 척도 Recoding
	친족	3	V1_5~V1_7	
	공동체	2	V1_8~V1_8	
	사회진출의식	1	V2	5점 척도 Recoding (V7, V8_1~V8_7제외)
	재정담당역할	1	V7	
	가사별 역할	7	V8_1~V8_7	
	농정의식	5	V9_1~V9_5	
	농업의 만족도	1	V3	
농촌여성의 행태	가정/영농활동	2	V5_1, V5_2	다중응답형 "
	가정내 역할	1	V4	
	농업관련 의견	3	V6, V10, V11_1~V11_9	
	영농정보의 원천	1	V17	
기타	농기계의 보급도	1	V16	다중응답형



2. 調査方法

1) 調査의 概要

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은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제주군의 읍·면지역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주도 북제주군 관내 농협 부녀회원 5,689명 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565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1995년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565매의 설문을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지역에 배포하여 그 중 454

매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중 불성실한 응답설문 48매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6매를 유효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III-2> 표본의 배포 및 회수현황

구 분	부녀회원수 (명)	배포량 (개)	배포비율 (%)	회수량 (개)	불성실 (개)	최종이용 (개)	최종이용률 (%)
구좌	1,078	110	10.2	97	13	84	76.36
조천	653	65	10.0	59	7	52	80.00
한림	1,309	130	9.9	116	15	101	77.69
한경	1,035	100	9.7	87	11	76	76.00
애월	1,614	160	9.9	95	2	93	58.13
합 계	5,689	565	9.9	454	48	406	71.86

2) 調査方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및 농촌여성들의 의식구조를 설문지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농촌여성의 의식구조는 가족, 친족, 공동체, 사회진출, 농정 등 여러 부문으로 구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의식구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의식구조의 차이분석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유형에 따라 變量分析(Oneway Anova, T-test)을 통해 의식구조의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의 역할 및 여성이 농사에 종사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교차분석(Crosstab)을 하였으며, 희망 교육사항이나, 농기계의 보급정도 그리고 영농관련 정보의 원천 등 다중응답형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이분화 응답처리(Multiple Dichotomy Groups)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유효표본 406매를 대상으로 농촌여성의 의식구조의 정도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평균 등을 이용하였는데, 변수별 집단차이의 분석에는 T-test와 Anova 분석을 이용하였다. 특히 분석에 이용된 독립변수의 집단은 그 집단수에 따라 2집단인 경우에는 T검증을 하였고, 3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는데, T검증시에는 집단간 분산이 동일한 경우, 즉 F값과 관련된 확률치가 앞서

설정한 유의수준 0.05보다 큰 경우, F값이 기각역 밖에 있으면 결합된 분산추정치(Pooled Variance Estimate)를 이용한 T검증을 하였고, 반대로 집단간 분산이 다른 경우, 즉 F값과 관련된 확률치가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경우인 기각역 안에 있을 때는 분리된 분산추정치(Separate Variance Estimate)를 이용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⁶¹⁾

또한 다중비교가 이루어진 곳에서는 사후검증의 방법 중 평균의 차이검증에 민감한 Duncan방식의 사후검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검증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변량분석을 위해 의식구조를 설문한 변수들은 5점 리커트스케일(Likert Scale)로 조사되었으며, 의식구조가 전통적인 성향을 띠수록 높은 점수(5점)를 배당하였고, 의식구조가 근대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에는 낮은 점수(1점)를 배분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의 의식구조를 나타내며, 점수가 낮을수록 현대적이며 진취적인 성향의 의식구조를 나타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연령은 30세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0세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나 60세 이상의 응답자가 미미하여(1.7%) 50세 이상의 연령층에 포함시켰고, 교육수준의 경우도 무교육(1.7%)은 국졸미만으로, 전문대 및 대졸은 대졸이상으로 집단화 하였다. 생활수준은 매우 높다에서 매우 낮다까지 5단계로 구분하였으나, 매우 높다(0.2%)는 높다(4.7%)와 함께 상위로, 매우 낮다(1.7%)와 낮다(6.4%)는 하위로 각각 집단화 하였고, 토지소유 면적은 500평 단위로 조사되었으나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1000평 단위로 집단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이용한 전통적이란 용어나 근대적 또는 현대적이란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이용되었다. 즉 전통적이란 농촌여성들이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채 비합리와 전통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경우이며, 근대적 또는 현대적이란 용어는 농촌여성들이 과거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합리와 전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61) 채서일·김범중·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2, p.96.

IV. 濟州道 農村女性의 意識構造 分析

1. 資料의 概要

실증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일반적 특성은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406명의 유효표본 중 연령별로 30대 미만이 33명으로 8.1%, 30대가 184명으로 45.3%, 40대가 151명으로 37.2%, 그리고 50대 이상의 응답자가 38명으로 9.4%가 응답하였다. 본 연구가 농협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됨으로써 30대 및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응답자가 167명으로 4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대졸이상은 3.7%로 상당히 미미한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층이 낮을수록 대졸이상의 학력층이 증가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대졸자 중에서 40대가 26.7%인데 비해, 30대는 33.3% 그리고 30대미만의 경우는 40.0%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은 중간수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53명으로 86.9%를 차지하고, 반면 하위수준에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촌여성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중류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소유정도는 천평단위로 볼 때, 1000평~2000평사이가 99명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V-1>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구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연령별	30대 미만	33	8.1	8.1
	30대	184	45.3	53.4
	40대	151	37.2	90.6
	50대 이상	38	9.4	100.0
학력별	국졸이하	95	23.4	23.4
	중졸	129	31.8	55.2
	고졸	167	41.1	96.3
	대졸이상	15	3.7	100.0

(표 계속)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생활 수준	상위	20	4.9	4.9
	중위	353	86.9	91.9
	하위	33	8.1	100.0
토지 소유 면적	천평 미만	64	15.8	15.8
	~2천평	77	19.0	34.7
	~3천평	99	24.4	59.1
	~4천평	64	15.8	74.9
	~5천평	30	7.4	82.3
	5천평 이상	72	17.7	100.0

2. 意識構造의 分析

1) 가설의 검증

(1) 가설 1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족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농촌사회의 근대화에 따라 농촌사람들의 의식구조도 바뀌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여성들이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의식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령이 낮은 30대 미만은 평균이 2.8629로서 전통적 가족의식에 반대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고연령층일수록 전통적 의식에 찬성하는 경향이 짙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집단에서 가족관계에 대해 보이는 의식구조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에 따른 집단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졸이하가 평균 3.5374인데 반하여 고졸이나 대졸이상은 이보다 낮은 2.9466 및 3.0을 나타내고 있어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가치성향에 있어 전통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이라는 사실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응답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평가한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생활수준이 높다고 답한 집단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생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오히려 전통적 가족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여성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높다고 표현하는 집단은 근대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고, 낮다고 표현한 집단은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수준에 따른 집단과 비교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과는 상당히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많다는 집단이 생활수준도 높다고 응답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대체적으로 소유토지 면적이 클수록 가족관에 대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소유토지 면적이 작은 집단일수록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근대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생활수준과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들은 $\alpha=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에 대해 농촌여성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고 또한 강조되면서 약화되어 가는 반면 가족과 관련해 가지는 근대적인 의식구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2> 농촌여성의 가족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1	2.8629	7.3688***	.0001	3/379/382	G1-G3
	30대	177	2.9986				G1-G4
	40대	139	3.3327				G2-G3
	50대이상	36	3.3472				G2-G4
학력별	국졸이하	87	3.5374	12.1758***	.0000	3/379/382	G1-G2
	중졸	118	3.1377				G1-G3
	고졸	164	2.9466				G1-G4
	대졸이상	14	3.0000				G2-G3
생활수준	상위	20	2.7625	3.1430**	.0443	2/380/382	G1-G2
	중위	333	3.1494				G1-G3
	하위	30	3.3083				
소유토지	천평 미만	61	3.0697	2.6499**	.0227	5/377/382	G1-G6
	~2천평	72	3.1215				G2-G6
	~3천평	95	2.9816				G3-G6
	~4천평	62	3.1452				
	~5천평	26	3.2692				
5천평 이상	67	3.4030					

주) *** $p < 0.01$, ** $p < 0.05$, * $p < 0.1$

(2) 가설 2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친족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여성들의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또한 전반적으로 평균 3을 전후한 반면, 친족에 대해 가지는 의식구조의 평균은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평균 4점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령이 낮은 30대 및 30대 미만은 40대나 5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평균이 약간 낮게 나타남으로써 친족과 관련해서는 근대적인 의식구조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수준이나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력별 집단의 경우는 국졸이하가 평균 3.9로서 고졸의 3.7149나 대졸이상의 3.4286보다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친족에 대한 전통적 의식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3> 농촌여성의 친족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 미만	33	3.7071	.8574	.4633	3/389/392	-
	30대	180	3.6907				
	40대	143	3.8135				
	50대 이상	37	3.7838				
학력별	국졸이하	90	3.9000	2.5743*	.0537	3/389/392	G1-G3 G1-G4
	중졸	123	3.7100				
	고졸	166	3.7149				
	대졸이상	14	3.4286				
생활수준	상위	19	3.6140	.6492	.5230	2/390/392	-
	중위	343	3.7609				
	하위	31	3.6559				
소유토지	천평 미만	63	3.6614	1.6333	.1501	5/387/392	-
	~2천평	75	3.8400				
	~3천평	93	3.6631				
	~4천평	63	3.6455				
	~5천평	29	3.9425				
	5천평 이상	70	3.8381				

주) *** p<0.01, ** p<0.05, * p<0.1

(3) 가설 3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가치성향은 다르다.

<표 IV-2>나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여성들이 가족 및 친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공동체에 관련된 의식구조 보다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구조가 상당히 전통적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에 관계없이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평균 4점대를 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직도 기계화의 진척도가 필요한 농업상황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많을수록 마을행사나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전통적인 쪽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간에 $\alpha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표 IV-4> 농촌여성의 공동체의식 가치성향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3	4.0606	2.0444	.1071	3/396/399	-
	30대	183	4.1038				
	40대	147	4.2653				
	50대이상	37	4.1757				
학력별	국졸이하	93	4.3172	3.6517**	.0127	3/396/399	G1-G3
	중졸	128	4.2070				
	고졸	164	4.0640				
	대졸이상	15	4.0000				
생활수준	상위	18	4.1944	.9935	.3712	2/397/399	-
	중위	349	4.1791				
	하위	33	4.0152				
소유토지	천평 미만	63	4.0159	3.7028***	.0028	5/394/399	G1-G5 G1-G6 G2-G5 G3-G5 G3-G6 G4-G5
	~2천평	76	4.1579				
	~3천평	98	4.0663				
	~4천평	63	4.1349				
	~5천평	30	4.4500				
	5천평 이상	70	4.3571				

주) *** $p < 0.01$, ** $p < 0.05$, * $p < 0.1$

농촌여성이 농업에 만족하고 있는지 또는 불만스러워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족의식, 친족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 등이 서로 다른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그저그렇다는 집단을 제외하고 만족한 집단과 불만족한 집단을 구분하여 가치성향의 의식이 다른지 분석한 결과 <표 IV-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의식이 $\alpha=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업에 만족하는 농촌여성이 불만족하는 농촌여성보다 전통적 가족의식(3.3611), 친족의식(3.8929), 공동체 의식(4.4483)에 대한 가치가 더 높으며, 특히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가치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5> 농촌여성의 전통적 가치성향의 차이

구분	만족정도	빈도 (Count)	평균 (Mean)	표준편차 (S.D.)	자유도 (df)	t 값 (t value)	prob.
가족의식가치	불만족집단	51	2.9461	.666	76	-2.31**	.024
	만족집단	27	3.3611	.902			
친족의식가치	불만족집단	51	3.4379	.753	77	-2.52**	.014
	만족집단	28	3.8929	.791			
공동체의식가치	불만족집단	54	4.0278	.690	81	-2.78***	.007
	만족집단	29	4.4483	.588			

주) *** p<0.01, ** p<0.05, * p<0.1

(4) 가설 4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사회진출 의식은 다르다.

농촌여성의 사회진출 의지는 생활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집단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V-6> 즉 연령별로 보면 농촌여성 중 연령이 낮을수록 강한 사회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사회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뚜렷한 사회진출 의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나 대졸이상의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높은 평균

치를 보여 사회진출 의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는 소유토지가 작을수록 사회진출 의지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표 IV-6> 농촌여성의 사회진출 의식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3	4.3939	9.3250***	.0000	3/400/403	G1-G3, G4 G2-G3, G4 G3-G4
	30대	183	4.2514				
	40대	150	4.0400				
	50대이상	38	3.5789				
학력별	국졸이하	94	3.7872	14.9278***	.0000	3/400/403	G1-G3, G4 G2-G3, G4
	중졸	128	3.9844				
	고졸	167	4.3653				
	대졸이상	15	4.6667				
생활수준	상위	20	4.4000	1.2740	.2808	2/401/403	-
	중위	351	4.1111				
	하위	33	4.0606				
소유토지	천평 미만	64	4.3125	4.6929***	.0004	5/398/403	G1-G4, G6 G2-G6 G3-G4, G6
	~2천평	77	4.2338				
	~3천평	98	4.2857				
	~4천평	64	3.9688				
	~5천평	30	3.9333				
	5천평 이상	71	3.8169				

주) *** $p<0.01$, ** $p<0.05$, * $p<0.1$

(5) 가설 5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담당에 대한 의식은 서로 다르다.

가. 재정담당

<표 IV-7>은 농촌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돈을 관리하고 있는가를 설문한 결과 아내쪽이 강할 경우엔 5점에 가깝도록 그리고 남편쪽이 강할 경우에는 1점에 가깝도록 조사한 결과를 평균화하여 이를 집단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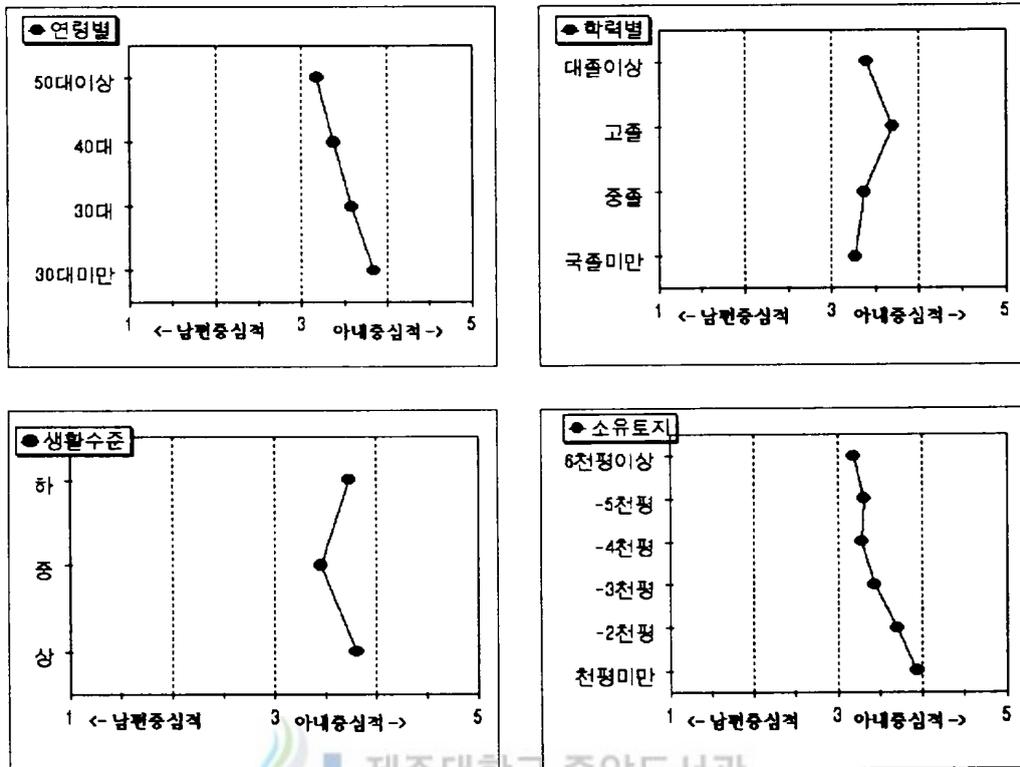
먼저 연령별로 살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내 돈관리는 아내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쪽에서 돈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에 따른 집단의 경우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소유토지 면적에 따른 집단에서는 서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토지소유 면적이 적은 경우의 집단이 대체적으로 아내가 돈관리를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고, 토지소유 면적이 많을수록 아내가 돈관리하는 경향은 약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집단간의 차이는 연령별 집단은 $\alpha=0.1$ 수준에서, 학력별 집단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른 집단은 $\alpha=0.01$ 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7> 농촌여성의 재정담당 의식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1	3.8387	2.3531*	.0717	3/397/400	G1-G4
	30대	183	3.5847				
	40대	149	3.3758				
	50대이상	38	3.1842				
학력별	국졸이하	93	3.2688	2.9421**	.0329	3/397/400	G1-G3 G2-G3
	중졸	126	3.3810				
	고졸	167	3.7006				
	대졸이상	15	3.4000				
생활수준	상위	20	3.8000	1.4079	.2459	2/398/400	-
	중위	348	3.4483				
	하위	33	3.7273				
소유토지	천평 미만	64	3.9375	3.5110***	.0041	5/395/400	G1-G3, G4, G5, G6 G2-G6
	~2천평	75	3.7067				
	~3천평	98	3.4286				
	~4천평	63	3.2857				
	~5천평	29	3.3103				
	5천평 이상	72	3.1944				

주) *** $p<0.01$, ** $p<0.05$, * $p<0.1$

<도 IV-1> 농촌여성의 재정담당 의식의 차이



나.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

가) 연령별 집단간의 의사결정 차이

<표 IV-8>은 농촌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중 누가 가사에 대한 역할분담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결정권의 집단별 평균은 아내 중심적일때 5점에 가까워지고, 남편 중심적일 때는 1점에 가깝다. <도 IV-2>~<도 IV-5>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작작물, 집수리 그리고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농촌여성의 역할이 더 미미한 반면, 식료품 및 옷구입,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큰 살림구입 그리고 자녀의 교육 등은 여성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체적인 경향을 연령에 따른 집단별로 살펴 보면, 경작작물이나 농

산물의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만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내의 역할이 크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내의 역할이 작다. 특히 경작작물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의 경우는 남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작작물이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은 연령별 집단간에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30대 미만 및 30대의 연령집단과 40대 이상의 연령집단간에는 역할분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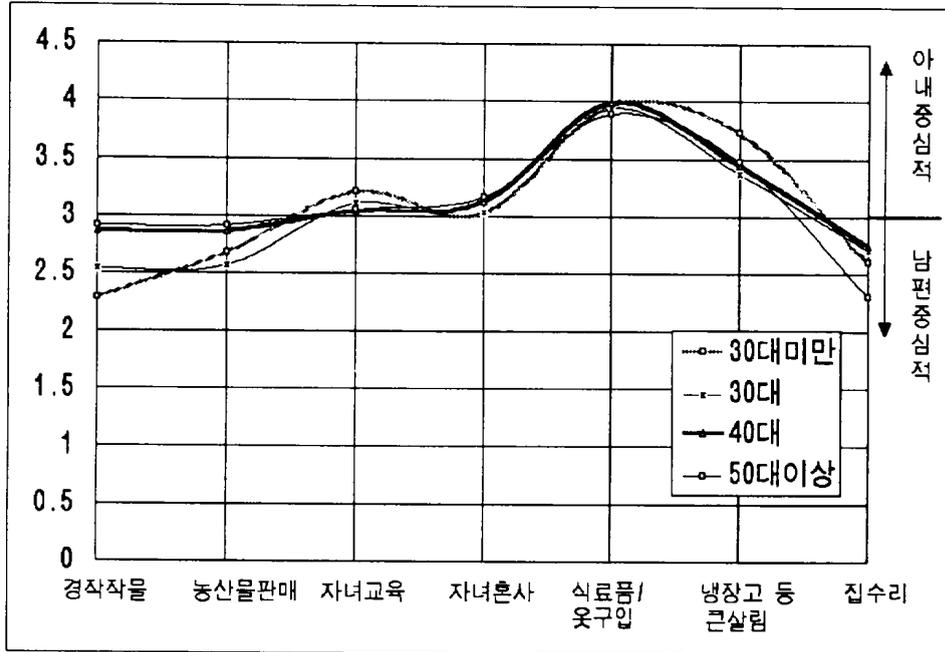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큰 연령집단을 보면, 경작작물, 농산물판매 그리고 자녀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자녀교육 및 냉장고 등 큰 살림에 대해서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이, 그리고 식료품 및 옷구입 및 집수리 등에 대해서는 40대 연령층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8> 연령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의사결정할 내용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작작물	2.2903	2.5385	2.8658	2.9189	6.5492***	.0002	3/395/398	G1-G3, G4 G2-G3, G4
농산물판매	2.6774	2.5659	2.8707	2.9167	4.3004***	.0053	3/392/395	G2-G3, G4
자녀교육	3.2121	3.1093	3.0470	3.0541	.7067	.5484	3/398/401	-
자녀혼사	3.0323	3.0373	3.1304	3.1667	1.1414	.3323	3/362/365	-
식료품/옷구입	3.9697	3.9348	3.9932	3.8947	.3826	.7656	3/398/401	-
냉장고 등 큰살림	3.7273	3.3791	3.4503	3.4737	2.0718	.1034	3/400/403	-
집수리	2.6041	2.7049	2.7483	2.3053	.5732	.6329	3/401/404	-

주) *** $p < 0.01$, ** $p < 0.05$, * $p < 0.1$

<도 IV-2> 가사담당 의식의 연령별 차이



나) 학력별 의사결정

<표 IV-9>는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학력별 집단의 역할분담의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작작물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판매 및 집수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혼사, 냉장고 등의 큰 살림 구입 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 큰 의사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집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여성의 결정권이 약하게 나타나며 학력이 높을수록 점차 더 약해지고 있다.

응답자가 국졸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작물이나 농산물판매, 식료품 및 옷구입 그리고 집수리 등에 대해 다른 학력의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결정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졸의 집단은 자녀혼사에, 고졸집단은 자녀교육에, 그리고 대졸이상의 집단은 냉장고 등 큰 살림의 구입의사 결정시에 상대적으로 여성의 결정권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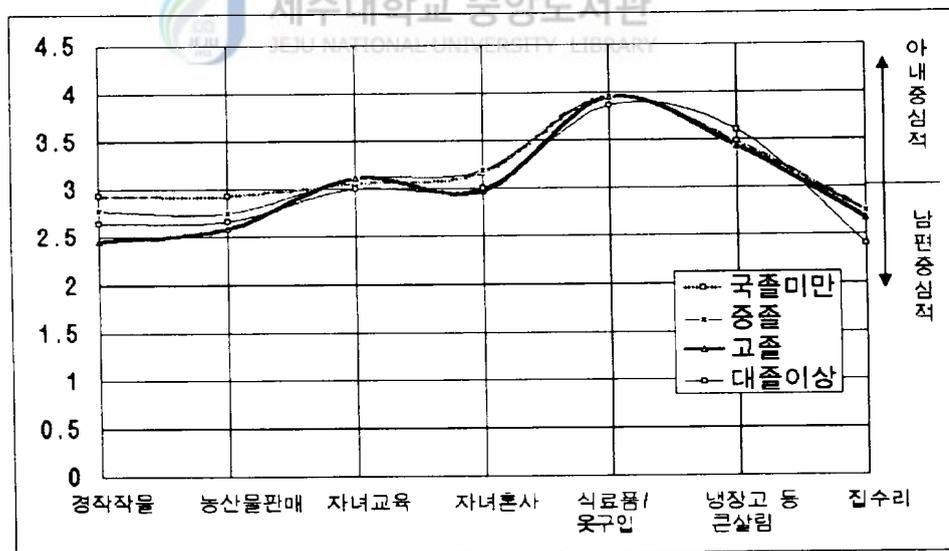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변수들은 경작작물, 농산물판매 그리고 자녀혼사에 대해서만 학력별 집단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9> 학력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의사결정할 내용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국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경작작물	2.9355	2.7795	2.4545	2.6429	6.6052***	.0002	3/395/398	G1-G3 G2-G3
농산물판매	2.9231	2.7460	2.5915	2.6667	3.0833**	.0273	3/392/395	G1-G3
자녀교육	3.0532	3.0952	3.1138	3.0000	.2763	.8425	3/398/401	-
자녀혼사	3.1591	3.1892	2.9739	3.0000	4.4088***	.0046	3/362/365	G1-G3 G2-G3
식료품/옷구입	3.9677	3.9528	3.9581	3.8667	.1180	.9495	3/398/401	-
냉장고 등 큰살림	3.4737	3.4141	3.4337	3.6000	.3439	.7936	3/400/403	-
집수리	2.7474	2.7442	2.6747	2.4000	1.1205	.3405	3/401/404	-

주) *** p<0.01, ** p<0.05, * p<0.1

<도 IV-3> 가사담당 의식의 학력별 차이



다. 생활수준별 의사결정

<표 IV-10>은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생활수준에 따른 집단별 역할분담의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생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집단은 경작작물, 농산물판매, 자녀교육, 자녀혼사 등에 대해 여성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 및 옷구입, 집수리 등은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여성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냉장고 등 큰 살림에 대한 의사결정은 생활수준이 중이라고 응답한 집단인 경우에서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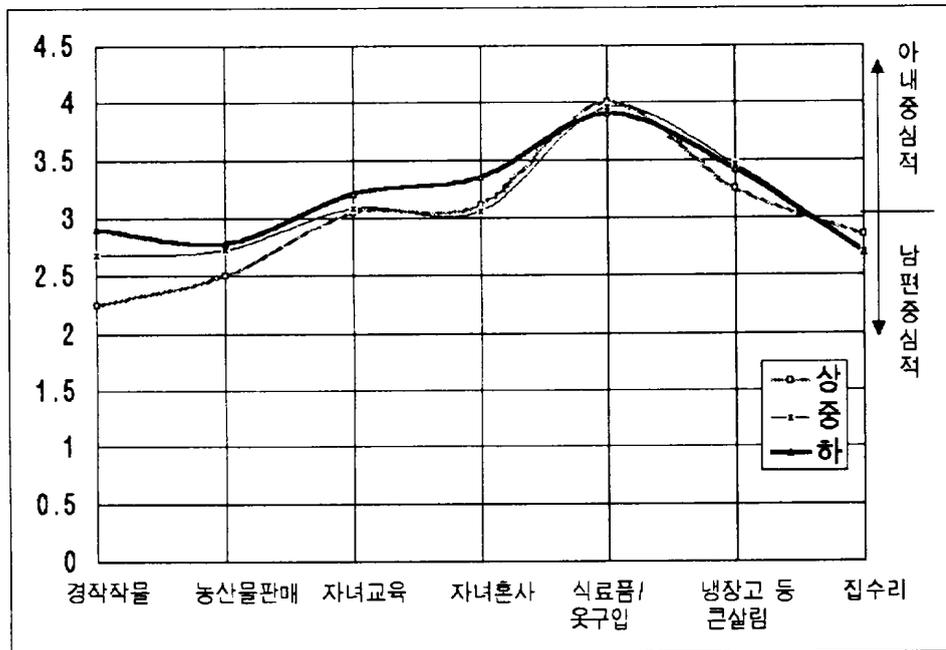
그러나 이상과 같은 변수들은 경작작물 그리고 자녀혼사에 대해서만 $\alpha=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0> 생활수준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의사결정할 내용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상	중	하				
경작작물	2.2500	2.6801	2.9063	3.2586**	.0395	2/396/398	G1-G2, G3
농산물판매	2.5000	2.7267	2.7813	.7615	.4676	2/393/395	-
자녀교육	3.0500	3.0802	3.2121	.6690	.5128	2/399/401	-
자녀혼사	3.1111	3.0594	3.3571	4.0826**	.0176	2/363/365	G2-G3
식료품/옷구입	4.0000	3.9571	3.9063	.1560	.8556	2/399/401	-
냉장고 등 큰살림	3.2500	3.4558	3.4242	.7262	.4844	2/401/403	-
집수리	2.8500	2.6960	2.6970	0.935	.6749	2/402/404	-

주) *** $p < 0.01$, ** $p < 0.05$, * $p < 0.1$

<도 IV-4> 가사담당 의식의 생활수준별 차이



라. 소유토지 면적별 의사결정

<표 IV-11>은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에 따른 집단별로 역할분담의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작작물, 자녀교육, 자녀혼사, 집수리 그리고 냉장고 등 큰 살림의 구입 등에 대한 의사결정은 4000평~5000평을 가진 집단인 경우에서 여성의 역할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농산물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은 천평미만을 가진 응답자 집단인 경우에, 그리고 식료품 및 옷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5000평 이상을 가진 집단인 경우에 각각 여성의 역할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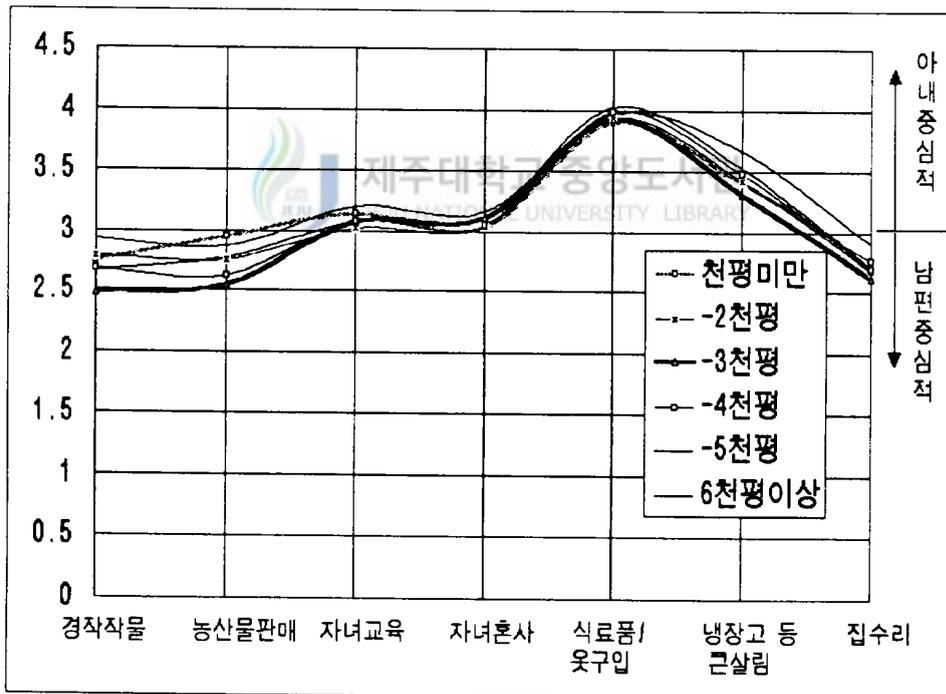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결과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토지소유 면적에 따른 집단간 $\alpha=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표 IV-11> 소유토지 면적별 가사담당 의식의 차이

의사결정할 내용	평균						F 값	P 값	df.	사후 검증
	천평 미만	~2천 평	~3천 평	~4천 평	~5천 평	5천평 이상				
경작작물	2.7419	2.7867	2.4796	2.6774	2.9333	2.6667	1.6975	.1341	5/393/398	-
농산물판매	2.9508	2.7568	2.5453	2.6230	2.8667	2.7746	2.4008**	.0366	5/390/395	G1-G3
자녀교육	3.1429	3.0260	3.0816	3.0781	3.2069	3.0845	.4325	.8259	5/396/401	-
자녀혼사	3.0345	3.0448	3.1196	3.0508	3.1667	3.1212	.4734	.7961	5/360/365	-
식료품 옷구입	3.9063	3.9342	3.9286	3.9841	3.9667	4.0282	.3636	.8733	5/396/401	-
냉장고 등 큰살림	3.4194	3.4286	3.3131	3.4844	3.6667	3.5278	1.3808	.2304	5/398/403	-
집수리	2.7656	2.6753	2.6263	2.6984	2.9000	2.7083	.7199	.6088	5/399/404	-

주) *** p<0.01, ** p<0.05, * p<0.1

<도 IV-5> 가사담당 의식의 소유토지 면적별 차이



(6) 가설 6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농정의식은 서로 다르다.

농촌여성들은 <표 IV-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실의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농민의료보험제도는 농민입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③ 농촌지도소의 농업기술보급은 과학영농과 소득증대의 계기가 된다. ④ 농협과 같은 농민단체는 농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 ⑤ 정부의 농업정책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집단시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등 농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경우는 5점에 가깝게 나타나며, 반대인 경우에는 1점에 가깝도록 조사되었는데 전체평균은 3.24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협과 같은 농민단체는 농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평균 3.85로 가장 높은 반면, 정부의 농업정책이 현실의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다시 살펴보면 40대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표 IV-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대나 30대 미만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치를 보여 연령별 집단차이가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나 국졸이하의 집단처럼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의식구조를 나타냈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간이나 하위의 집단이, 그리고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은 5천평 이상의 집단과 1000평 미만의 양극단 집단이 농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특히 학력별, 생활수준별 집단들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으며, 연령별 집단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은 $\alpha=0.1$ 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2> 농촌여성의 농정의식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1	3.1613	3.7389**	.0114	3/375/378	G2-G3
	30대	176	3.1500				
	40대	138	3.3855				
	50대이상	34	3.2412				
학력별	국졸이하	85	3.4588	8.4292***	.0000	3/375/378	G1-G3 G2-G3
	중졸	117	3.3402				
	고졸	163	3.0748				
	대졸이상	14	3.1286				
생활수준	상위	19	2.7895	5.8295***	.0032	2/376/378	G1-G2
	중위	330	3.2806				
	하위	30	3.1400				
소유토지	천평 미만	60	3.3033	1.9176*	.0905	5/373/378	G3-G6
	~2천평	71	3.2563				
	~3천평	95	3.1011				
	~4천평	58	3.2069				
	~5천평	29	3.2897				
	5천평 이상	66	3.4000				

주) *** p<0.01, ** p<0.05, * p<0.1

(7) 가설 7



: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서로 다르다.

농사에 대한 농촌여성의 만족정도는 대체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집단이, 학력별로는 국졸이하, 생활수준은 상위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는 5000평 이상을 소유한 집단이 각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 집단을 제외한 학력별, 생활수준별 집단은 $\alpha=0.05$ 수준에서,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른 집단은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30대 미만의 연령층이나, 중졸집단, 생활수준이 하위인 집단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이 2000평~3000평 사이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변수구분		사례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3	3.1515	.3232	.8086	3/401/404	-
	30대	184	3.3098				
	40대	150	3.2667				
	50대이상	38	3.2632				
학력별	국졸이하	94	3.5213	3.3782**	.0184	3/401/404	G1-G2 G1-G3
	중졸	129	3.1705				
	고졸	167	3.2275				
	대졸이상	15	3.2000				
생활수준	상위	19	3.6316	4.1429**	.0166	2/402/404	G1-G3 G2-G3
	중위	353	3.2890				
	하위	33	2.9394				
소유토지	천평 미만	64	3.2813	3.6241***	.0032	5/399/404	G1-G6 G2-G6 G3-G6 G4-G6 G5-G6
	~2천평	77	3.3247				
	~3천평	99	3.1212				
	~4천평	64	3.1250				
	~5천평	29	3.1379				
	5천평 이상	72	3.6250				

주) *** p<0.01, ** p<0.05, * p<0.1

2) 농촌여성의 인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촌여성들이 농촌사회와 관련해 느끼고 있는 행태를 분석해 보기 위해 가정과 영농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가정내에서는 주로 어떤 위치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농사와 관련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 보았다.

(1) 가정과 영농활동의 난이성

여성의 역할이 가사에 한정되지 않고 남성이 주로 해 오던 영농활동에 까지 확대 됨으로써 여성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가정활동 및 영농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연령, 학력, 생활수준 그리고 토지소유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표 IV-14>는 농촌여성이 가정활동과 영농활

동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5점에 가까울수록 수월하다는 쪽이며, 1점에 가까울수록 힘들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평균이 1점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정활동이나 영농활동에 대해 농촌여성들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활동이나 영농활동 모두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간에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가정활동은 어느 여성이든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상황이 있어서인지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유토지가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영농활동의 양에 따른 부담이 추가되어 가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농촌여성 중 1000~2000평의 토지를 가진 집단이나 3000~4000평을 가진 집단보다는 2000~3000평을 가진 집단이 가정활동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0~4000평을 가진 집단보다 2000~3000평을 가진 집단이 가정활동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 이유는 농기계의 보급과도 관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작하는 토지가 많은 경우 농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정활동에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되므로 힘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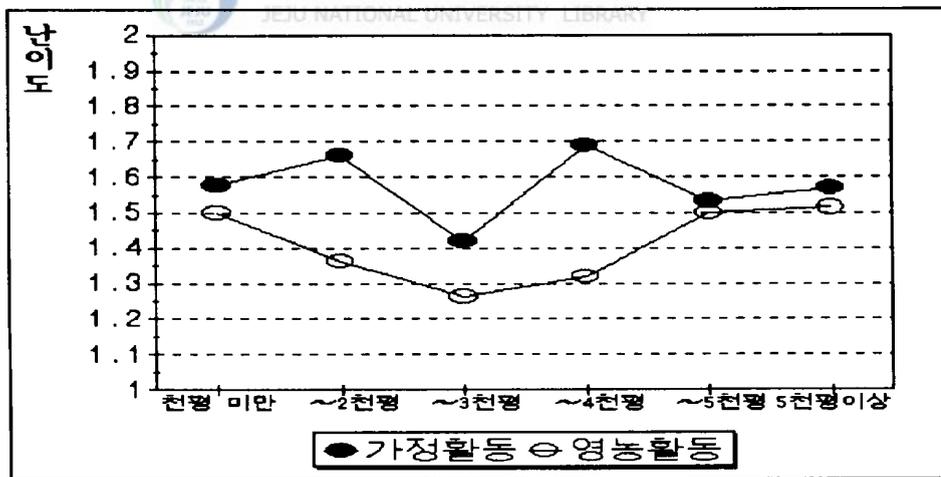
영농활동의 경우는 <도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활동보다 더 힘들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IV-14>에 나타난 영농활동의 각 평균을 보면 1.5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간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힘들어하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의 집단이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의 경우는 2000~3000천평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집단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1000평 미만의 집단이나 4000평 이상의 집단보다 2000~4000평 사이의 집단이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작토지가 적으면 노동력의 필요 정도도 작고, 또 경작토지가 많으면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작토지가 이들의 중간정도인 집단은 기계에 의존하기 보다는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어 이로 인한 과도한 노동이 영농활동을 힘들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표 IV-14> 가정활동/영농활동의 난이도

변수구분		가정활동				영농활동			
		사례 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사례 수	평균	F 값 P 값 df.	사후검증
연령별	30대미만	33	1.6061	1.6206 .1840 3/401/404	-	33	1.4848	4.3856*** .0047 3/396/399	G2-G3
	30대	184	1.5054						
	40대	150	1.6000						
	50대이상	38	1.7105						
학력별	국졸이하	94	1.6489	1.1369 .3339 3/401/404	-	92	1.5435	4.8197*** .0026 3/396/399	G1-G3
	중졸	129	1.5116						
	고졸	167	1.5569						
	대졸이상	15	1.6667						
생활수준	상위	20	1.6500	1.4409 .2379 2/402/404	-	20	1.3000	1.3434 .2621 2/397/399	-
	중위	353	1.5779						
	하위	32	1.4063						
소유토지	천평 미만	64	1.5781	2.2256 .0510 5/399/404	G2-G3	64	1.5000	2.8898** .0141 5/394/399	G1-G3
	~2천평	77	1.6623						
	~3천평	98	1.4184		G3-G4	96	1.2604		
	~4천평	64	1.6875						
	~5천평	30	1.5333						
5천평 이상	72	1.5694							

주) *** p<0.01, ** p<0.05, * p<0.1

<도 IV-6> 가정활동/영농활동의 어려움



(2) 농촌여성의 가정내 역할

가정내에서 농촌여성은 <표 IV-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6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어머니의 역할이 59.6%, 아내로서의 역할이 25.7%,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14.1%인데⁶²⁾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각각 60.6%, 25.6%, 6.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이전의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76.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30~40대의 연령층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둔다고 응답하여, 농촌사회의 경우도 상당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아내의 역할의 경우는 이전 연구에서 3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던 비율이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이전의 연구에서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30~40대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연령별 농촌여성의 역할

구분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이상	줄간합계
어머니	17 6.9 51.5 4.2	123 50.0 66.8 30.3	88 35.8 58.3 21.7	18 7.3 47.4 4.4	246 60.6
아내	9 8.7 27.3 2.2	45 43.3 24.5 11.1	37 35.6 24.5 9.1	13 12.5 34.2 3.2	104 25.6
며느리	5 17.9 15.2 1.2	7 25.0 3.8 1.7	12 42.9 7.9 3.0	4 14.3 10.5 1.0	28 6.9
기타	2 7.1 6.1 .5	9 32.1 4.9 2.2	14 50.0 9.3 3.4	3 10.7 7.9 .7	28 6.9
열간합계	33 8.1	184 45.3	151 37.2	38 9.4	406 100.0

Chi-Square = 13.34340, d. f. = 9, Sign. = .1477

주) 각 셀에 나타난 수치는 빈도, 줄간비율, 열간비율, 총비율 등임.

62) 농업협동조합중앙회(I), 전계서, p.27.

(3) 농촌여성의 농업관련 의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표 IV-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산물의 적절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어려운 것은 농사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표 IV-16> 농촌여성의 어려움

항 목	빈 도(명)	백분율(%)	유효백분율(%)	누적합계(%)
농사힘듦	138	34.0	34.4	34.4
기술부족	45	11.1	11.2	45.6
기계사용범어렵다	9	2.2	2.2	47.9
자녀돌볼시간없다	40	9.9	10.0	57.9
집안일여유없다	11	2.7	2.7	60.6
농산물적정값관련	158	38.9	39.4	100.0
무응답	5	1.2	-	-

이상과 같은 결과를 소유토지별 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천평미만, 1000-2000평, 3000-4000평 등의 집단은 농사가 힘들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00평 이상의 집단은 농산물 가격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평미만의 집단은 기술부족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며, 1000-2000평의 집단은 농산물 가격을, 2000-3000평 이상의 집단은 농사가 힘들다는 항목에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alpha=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7> 소유토지별 농촌여성의 어려움

구 분	천평미만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5천이상	줄간합계
농사힘듦	23	27	30	25	9	24	138
	16.7	19.6	21.7	18.1	6.5	17.4	34.4
	36.5	36.0	30.6	39.1	31.0	33.3	
기술부족	5.7	6.7	7.5	6.2	2.2	6.0	
	13	12	11	3	4	2	45
	28.9	26.7	24.4	6.7	8.9	4.4	11.2
	20.6	16.0	11.2	4.7	13.8	2.8	
	3.2	3.0	2.7	.7	1.0	.5	

(표 계속)

구 분	천평미만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5천이상	줄간합계
기계사용법	2 22.2 3.2	2 22.2 2.7	3 33.3 3.1	1 11.1 1.6	1 11.1 3.4	- - -	9 2.2
어렵다	.5	.5	.7	.2	.2	-	
자녀돌볼	10 25.0 15.9	7 17.5 9.3	6 15.0 6.1	8 20.0 12.5	1 2.5 3.4	8 20.0 11.1	40 10.0
시간없다	2.5	1.7	1.5	2.0	.2	2.0	
집안일	4 36.4 6.3	1 9.1 1.3	1 9.1 1.0	2 18.2 3.1	- - -	3 27.3 4.2	11 2.7
여유없다	1.0	.2	.2	.5	-	.7	
농산물	11 7.0 17.5	26 16.5 34.7	47 29.7 48.0	25 15.8 39.1	14 8.9 48.3	35 22.2 48.6	158 39.4
적정값근관	2.7	6.5	11.7	6.2	3.5	8.7	
열간합계	63 15.7	75 18.7	98 24.4	64 16.0	29 7.2	72 18.0	401 100.0

Chi-Square = 40.73522**, d. f. = 25, Sign. = .0245

주) 각 셀에 나타난 수치는 빈도, 줄간비율, 열간비율, 총비율 등임.

농촌여성들이 농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사업은 <표 IV-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1위로 꼽고 있으며, 이어 값싼 영농자금의 용자(12.2%)나 농업의 부업알선(11.4%)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통구조 개선, 부업알선 등은 30대 연령집단이, 농자재값 인하나 농가부채 등은 40대의 연령집단이 높게 비중을 두고 있다. 학력별로 보면, 유통구조개선, 부업알선은 고졸집단이, 농자재값의 인하는 국졸미만의 집단이, 저리 영농자금 및 농가부채의 해결은 중졸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 IV-18> 농촌여성의 대정부 요구사항

항 목	빈 도(명)	백분율(%)	유효백분율(%)	누적합계(%)
유통구조개선	246	60.6	61.0	61.0
부업알선	46	11.3	11.4	72.5
농자재값인하	36	8.9	8.9	81.4
저리영농자금	49	12.1	12.2	93.5
농가부채해결	23	5.7	5.7	99.3
경지정리	2	.5	.5	99.8
기타	1	.2	.2	100.0
무응답	3	.7	-	-

농촌여성들이 농협, 농업진흥원 그리고 각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교육내용은 <표 IV-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설문은 다중 응답된 것이므로 총계란에 나타난 수치와 표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총계란의 수치는 응답한 사람의 수이며,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항목에 답한 경우가 포함됨으로써 표내의 사례수 합계는 총계란의 수치보다 크게 나타난다.

농촌여성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자녀교육/생활설계(56.3%)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위생(53.6%), 특용작물 재배기술(39.5%), 취미/오락/교양(3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미만의 연령층과 30대의 연령층 그리고 40대 연령층은 자녀교육/생활설계(각각 72.7%, 63.4%, 51.7%)를,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건강/위생(50.0%)을 희망 교육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IV-19>

학력별로 보면 중졸 및 고졸 집단은 자녀교육/생활설계(각각 54.3%, 67.5%)를, 국졸이하의 집단은 건강/위생(52.7%)을, 대졸이상의 집단은 시설원예기술(53.3%)을 가장 희망하는 교육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IV-20>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위 및 중위 집단은 자녀교육/생활설계(각각 75.0%, 56.0%)를, 하위 집단은 건강/위생(51.5%)을 각각 가장 희망하는 교육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IV-21>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 살펴보면 1000평미만, 1000~2000평 그리고 3000-4000평을 소유한 집단은 자녀교육/생활설계(각각 62.7%, 57.9%, 57.8%)를,

2000-3000평, 4000-5000평, 5000평 이상의 집단은 건강/위생(각각 58.2%, 65.5%, 51.4%)을 각각 가장 희망하는 교육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IV-22>

<표 IV-19>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연령별)

연령별 집단 교육사항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식생활개선	14	42.4	71	38.8	41	27.5	10	26.3	136	33.7
자녀교육/생활설계	24	72.7	116	63.4	77	51.7	10	26.3	227	56.3
건강/위생	20	60.6	102	55.7	75	50.3	19	50.0	216	53.6
농기계사용법	7	21.2	39	21.3	47	31.5	15	39.5	108	26.8
시설원예기술	14	42.4	25	13.7	24	16.1	7	18.4	70	17.4
전정/비료/농약	9	27.3	52	28.4	59	39.6	18	47.4	138	34.2
특용작물재배기술	18	54.5	69	37.7	60	40.3	12	31.6	159	39.5
취미/오락/교양	12	36.4	85	46.4	52	34.9	7	18.4	156	38.7
농협사업/정부시책	8	24.2	39	21.3	46	30.9	9	23.7	102	25.3
총계	33	100	183	100	149	100	38	100	403	100

<표 IV-20>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학력별)

학력별 집단 교육사항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식생활개선	19	20.4	41	31.8	71	42.8	5	33.3	136	33.7
자녀교육/생활설계	38	40.9	70	54.3	112	67.5	7	46.7	227	56.3
건강/위생	49	52.7	70	54.3	90	54.2	7	46.7	216	53.6
농기계사용법	28	30.1	41	31.8	34	20.5	5	33.3	108	26.8
시설원예기술	13	14.0	20	15.5	29	17.5	8	53.3	70	17.4
전정/비료/농약	38	40.9	46	35.7	48	28.9	6	40.0	138	34.2
특용작물재배기술	39	41.9	52	40.3	61	36.7	7	46.7	159	39.5
취미/오락/교양	22	23.7	45	34.9	83	50.0	6	40.0	156	38.7
농협사업/정부시책	23	24.7	34	26.4	40	24.1	5	33.3	102	25.3
총계	93	100	129	100	166	100	15	100	403	100

<표 IV-21>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생활수준별)

교육사항	상		중		하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식생활개선	8	40.0	118	33.7	10	30.3	136	33.7
자녀교육/생활설계	15	75.0	196	56.0	16	48.5	227	56.3
건강/위생	11	55.0	188	53.7	17	51.5	216	53.6
농기계사용법	3	15.0	96	27.4	9	27.3	108	26.8
시설원예기술	4	20.0	61	17.4	5	15.2	70	17.4
전정/비료/농약	5	25.0	125	35.7	8	24.2	138	34.2
특용작물재배기술	3	15.0	140	40.0	16	48.5	159	39.5
취미/오락/교양	13	65.0	134	38.3	9	27.3	156	38.7
농협사업/정부시책	4	20.0	87	24.9	11	33.3	102	25.3
총계	20	100	350	100	33	100	403	100

<표 IV-22> 농촌여성의 희망 교육사항(소유토지 면적별)

교육사항	천평미만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5천평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식생활개선	23	35.9	22	28.9	45	45.9	20	31.3	12	41.4	14	19.4	136	33.7
자녀교육/생활설계	43	67.2	44	57.9	56	57.1	37	57.8	15	51.7	32	44.4	227	56.3
건강/위생	31	48.4	39	51.3	57	58.2	33	51.6	19	65.5	37	51.4	216	53.6
농기계사용법	15	23.4	27	35.5	20	20.4	18	28.1	10	34.5	18	25.0	108	26.8
시설원예기술	19	29.7	11	14.5	15	15.3	13	20.3	4	13.8	8	11.1	70	17.4
전정/비료/농약	19	29.7	26	34.2	33	33.7	26	40.6	13	44.8	21	29.2	138	34.2
특용작물재배기술	30	46.9	37	48.7	30	30.6	20	31.3	11	37.9	31	43.1	159	39.5
취미/오락/교양	26	40.6	35	46.1	42	42.9	18	28.1	13	44.8	22	30.6	156	38.7
농협사업/정부시책	10	15.6	22	28.9	25	25.5	13	20.3	12	41.4	20	27.8	102	25.3
총계	64	100	76	100	98	100	64	100	29	100	72	100	403	100

(4) 농촌의 농기계 보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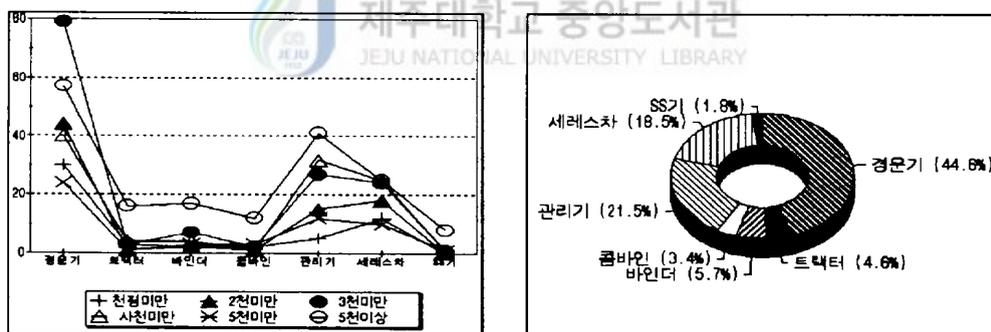
농촌의 노동력 인구가 노령화되고 부녀화되면서 농기계의 역할은 매우 커지게 되었다. <표 IV-23>은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 구분해 본 농기계 보급결과이다. 기계의 종류별로는 <도 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운기의 보급도가 가장 많고 이어 관리기, 세레스차 순이다. 특히 소유토지 면적이 5000평 이상인 경우는 열거된 농기계의 보급정도가 다른 집단들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 살펴 보면 전 집단에 걸쳐 경운기의 보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두번째로 많이 보급된 농기계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천평미만의 집단(30.0%)과 1000-2000평의 집단(31.0%)은 세레스차가 두번째로 많이 보급된 반면, 2000-3000평(30.7%), 3000-4000평(56.1%), 4000-5000평(44.4%), 그리고 5000평 이상의 집단(59.4%)은 관리기가 차지하고 있다.

<표 IV-23> 소유토지 면적별 농기계의 보급도

소유토지면적 농기계	천평미만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5천평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경운기	30	75.0	44	75.9	79	89.8	40	70.2	24	88.9	57	82.6	274	80.8
트랙터	3	7.5	1	1.7	3	3.4	4	7.0	1	3.7	16	23.2	28	8.3
바인더	2	5.0	2	3.4	7	8.0	4	7.0	3	11.1	17	24.6	35	10.3
콤바인	2	5.0	1	1.7	2	2.3	1	1.8	3	11.1	12	17.4	21	6.2
관리기	5	12.5	15	25.9	27	30.7	32	56.1	12	44.4	41	59.4	132	38.9
세레스차	12	30.0	18	31.0	24	27.3	25	43.9	10	37.0	25	36.2	114	33.6
SS기	-	-	-	-	1	1.1	1	1.8	1	3.7	8	11.6	11	3.2
총 계	40	100	58	100	88	100		100	27	100	69	100	339	100

<도 IV-7> 농기계의 보급정도



(5) 영농관련 정보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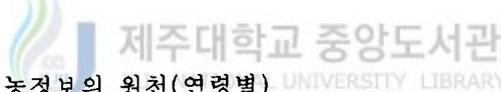
농촌여성들은 텔레비전을 통하여 영농정보를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협 및 행정기관도 주요 영농정보의 원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영농정보의 원천을 살펴 보면 <표 IV-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30대 미만의 연령층(42.4%)의 주요 영농정보 원천은 농협 및 행정기관이었으며, 30대(47.8%) 및 40대의 연령층(51.0%)은 텔레비전이었고, 50대 이상의 연령층(57.9%)은 마을사람이 영농관련 정보의 주요원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표 IV-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졸이하(48.4%), 중졸(52.7%) 그리고 고졸(44.9%)의 집단은 텔레비전이 주요 영농관련 정보의 원천이었고, 대졸 이상의 집단(60.0%)은 신문이 주요한 원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IV-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계층의 가장 중요한 영농정보의 원천은 텔레비전이며, 두번째로 중요한 정보원천은 상위(60.0%)와 중위계층 집단(38.2%)이 농협/행정기관으로 나타났고, 하위계층 집단(45.5%)은 마을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유토지 면적별로 살펴보면 <표 IV-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평미만(54.7%), 3000-4000평(46.9%), 4000-5000평(53.3%) 그리고 5000평 이상의 집단(48.6%)이 모두 텔레비전을 주요 영농정보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00-2000평(50.6%), 2000-3000평(46.5%)의 집단은 농협 및 행정기관을 주요 영농정보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 영농정보의 원천(연령별)

연령별 집단 교육사항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신문	8	24.2	81	44.0	49	32.5	10	26.3	148	36.5
잡지	3	9.1	10	5.4	14	9.3	1	2.6	28	6.9
텔레비전	11	33.3	88	47.8	77	51.0	18	47.4	194	47.8
라디오	1	3.0	6	3.3	8	5.3	-	-	15	3.7
마을사람	10	30.3	63	34.2	53	35.1	22	57.9	148	36.5
농협/행정기관	14	42.4	71	38.6	56	37.1	15	39.5	156	38.4
전문서적/기타	2	6.1	5	2.7	4	2.6	3	7.9	14	3.4
총계	33	100	184	100	151	100	38	100	403	100

<표 IV-25> 영농정보의 원천(학력별)

교육사항	학력별 집단		국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신문	26	27.4	48	37.2	65	38.9	9	60.0	148	36.5		
잡지	4	4.2	9	7.0	12	7.2	3	20.0	28	6.9		
텔레비전	46	48.4	68	52.7	75	44.9	5	33.3	194	47.8		
라디오	3	3.2	4	3.1	7	4.2	1	6.7	15	3.7		
마을사람	36	37.9	45	34.9	62	37.1	5	33.3	148	36.5		
농협/행정기관	37	38.9	47	36.4	67	40.1	5	33.3	156	38.4		
전문서적/기타	5	5.3	1	.8	7	4.2	1	6.7	14	3.4		
총계	95	100	129	100	167	100	15	100	406	100		

<표 IV-26> 영농정보의 원천(생활수준별)

교육사항	생활수준별		상		중		하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신문	12	60.0	126	35.7	10	30.3	148	36.5		
잡지	1	5.0	25	7.1	2	6.1	28	6.9		
텔레비전	13	65.0	163	46.2	18	54.5	194	47.8		
라디오	1	5.0	13	3.7	1	3.0	15	3.7		
마을사람	6	30.0	127	36.0	15	45.5	148	36.5		
농협/행정기관	12	60.0	135	38.2	9	27.3	156	38.4		
전문서적/기타	1	5.0	12	3.4	1	3.0	14	3.4		
총계	20	100	353	100	33	100	406	100		

<표 IV-27> 영농정보의 원천(소유토지 면적별)

교육사항	소유토지면적		천평미만		~2천평		~3천평		~4천평		~5천평		5천평이상		총계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사례	%
신문	21	32.8	25	32.5	38	38.4	22	34.4	9	30.0	33	45.8	148	36.5		
잡지	4	6.3	3	3.9	8	8.1	1	1.6	3	10.0	9	12.5	28	6.9		
텔레비전	35	54.7	34	44.2	44	44.4	30	46.9	16	53.3	35	48.6	194	47.8		
라디오	6	9.4	1	1.3	3	3.0	1	1.6	2	6.7	2	2.8	15	3.7		
마을사람	19	29.7	39	50.6	34	34.3	18	28.1	9	30.0	29	40.3	148	36.5		
농협/행정기관	20	31.3	24	31.2	46	46.5	24	37.5	15	50.0	27	37.5	156	38.4		
전문서적/기타	4	6.3	1	1.3	1	1.0	4	6.3			4	5.6	14	3.4		
총계	64	100	77	100	99	100	64	100	30	100	72	100	406	100		

3) 요약

(1) 가설검증

가설 1은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가족의식의 가치성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연령별, 학력별 집단은 $\alpha=0.01$ 수준에서, 그리고 생활수준 및 소유토지 면적별 집단은 $\alpha=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의식의 가치성향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분된 집단간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 근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 집단의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에 대한 가치성향에 전통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응답자가 평가한 자신의 생활수준별 집단의 경우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답한 집단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반면, 생활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오히려 전통적 가족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른 집단의 경우는 토지면적이 많을수록 가족관에 대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토지의 면적이 작은 집단일수록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근대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에 대해 농촌여성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고 또한 강조되면서 약화되어 가는 반면 가족과 관련하여 가지는 근대적인 의식구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촌여성에 대해 근대적 의식의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일과 업무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가설 2는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친족의식의 가치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력별 집단의 경우만 $\alpha=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나머지 변수들의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 친족에 대해 가지는 의식구조의 평균은 대체로 4점대에 가깝다. 또한 학력별 집단의 경우 국졸이하가 평균 3.9로서 고졸의 3.7149나 대졸이상의 3.4286보다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친족에 대해 전통적 의식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교육에 의한 지식이 개인주의 성향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친족보다는 개

인이 핵심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설 3은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가치성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소유토지 면적별 집단은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학력별 집단의 경우는 $\alpha=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여성들은 공동체에 관련된 의식구조에서 가족 및 친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써 상당히 전통적 의식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유토지 면적에 따른 집단으로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아직도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이용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4는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사회진출 의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별 집단이 $\alpha=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연령별로 보면 농촌여성 중 연령이 낮을수록 강한 사회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처럼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사회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집단이 저학력 집단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여 사회진출 의식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는 소유토지가 작을수록 사회진출 의지는 더 크다. 이러한 경향은 젊고 학력이 높아 사회진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며, 소유토지가 많지 않아 사회에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은 농촌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설 5는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가사담당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돈관리는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 이는 가정내에서 아내의 재정 담당역할이 크면 클수록 가정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전통사회와 비교해 큰 변화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경작작물의 결정은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농산물

판매의 결정은 연령별, 학력별, 소유토지 면적별로 차이가 있고, 자녀혼사의 결정은 학력별 및 생활수준별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작작물, 집수리 그리고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농촌여성의 역할이 더 미미한 반면, 돈관리, 식료품 및 옷구입,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큰 살림구입 그리고 자녀의 교육 등은 여성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토지소유 면적이 적은 경우의 집단이 대체적으로 아내가 돈관리를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고, 토지소유 면적이 많을수록 아내가 돈관리하는 경향은 약화되고 있다.

경작작물이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내의 역할이 크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내의 역할이 작다. 특히 경작작물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의 경우는 남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작작물, 농산물 판매 그리고 자녀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자녀교육 및 냉장고 등 큰 살림에 대해서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이 그리고 식료품 및 옷구입 및 집수리 등에 대해서는 40대 연령층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집단은 경작작물, 농산물판매, 자녀교육, 자녀혼사 등에 대해 여성의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 및 옷구입 및 집수리 등은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여성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은 천평미만을 가진 응답자 집단인 경우에 여성의 역할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설 6은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농정의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협과 같은 농민단체는 농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데에 평균 3.85로 가장 높은 반면,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실의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적인 면이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농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30대나 30대 미만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치를 보인다. 중졸이나 국졸이하의 집단처럼 학력이 낮을수록 농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구조를 나타냈으며,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간이나 하위의 집단이, 그리고 소유토지에 따른 집단은 5천평 이상의 집단과 1000평 미만의 양극단 집단이 농정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가설 7은 농촌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표 IV-28>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력별, 생활수준별 그리고 소유토지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사에 대한 농촌여성의 만족정도는 대체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집단이, 학력별로는 국졸이하, 생활수준은 상위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는 5000평 이상을 소유한 집단이 각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30대 미만의 연령층이나, 중졸집단, 생활수준이 하위인 집단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이 2000평~3000평 사이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IV-28> 분석결과의 요약

가설	주요내용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소유토지면적
		F 값	F 값	F 값	F 값
가설 1	가족의식의 가치척도	7.3688***	12.1758***	3.1430**	2.6499**
가설 2	친족의식의 가치척도	.8574	2.5743*	.6492	1.6333
가설 3	공동체의식 가치척도	2.0444	3.6517**	.9935	3.7028***
가설 4	사회진출의식	9.3250***	14.9278***	1.2740	4.6929***
가설 5	재정담당자의 역할	2.3531	2.9421	1.4079	3.5110
	경작작물의 결정	6.5492***	6.6052***	3.2586**	1.6975
	농산물판매의 결정	4.3004***	3.0833**	.7615	2.4008**
	자녀교육의 결정	.7067	.2763	.6690	.4325
	자녀혼사의 결정	1.1414	4.4088***	4.0826**	.4734
	식료품/옷구입 결정	.3826	.1180	.1560	.3636
	냉장고 등 큰살림 마련	2.0718	.3439	.7262	1.3808
	집수리 결정	.5732	1.1205	0.935	.7199
가설 6	농정의식	3.7389***	8.4292***	5.8295***	1.9176*
가설 7	농업만족도	.3232	3.3782**	4.1429**	3.6241***
기타	가정활동	1.6206	1.1369	1.4409	2.2256*
	영농활동	4.3856***	4.8197***	1.3434	2.8898**

주) 별(*)표는 $p < 0.01$ 일 때 세 개, $p < 0.05$ 일 때 두 개를 나타내며,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므로 별표가 없거나 한 개일 때는 가설내용이 기각됨을 의미함.

(2) 농촌여성의 의식

농촌사회가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순응과 인간집단에 대한 순응에서 연유하므로, 63) 합리적인 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전의 의식구조를 일시에 단절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종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따라서 농촌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성향을 띠면서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나 농민을 위한 정책수립에 그들의 의식구조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농촌사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첫째, 농촌여성의 가족의식 가치성향은 여성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 근대적인 성향을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유한 토지 면적이 많을수록 가족관에 대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가족에 대해 농촌여성들이 가지는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여성의 역할이 많아지고 강조되면서 약화되어 가는 반면 가족과 관련해 가지는 근대적인 의식구조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토지소유 면적이 많은 집단들은 아직도 전통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새로운 행정적 제도의 도입이나 농촌의 현대화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에는 충분한 의견교환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사업시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여성의 친족의식 가치성향은 전통적 성향이 강한데, 오늘날의 농촌사회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친족관계망이 축소되고 개인의 친족집단에서의 분리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농촌여성들은 아직도 친족 연대감과 친족의 행위규제력 및 친족간의 체면의식을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친족에 대한 전통적 의식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가 고학력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저학력의 소유자가 나타내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63) 한삼인, "지역공동체의 범규범-중문 일부지역의 관습·범의식·자치규범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4, p.79.

셋째, 현대사회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에 관련된 의식 구조는 아직도 가족 및 친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보다 더 전통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귀속감을 바탕으로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자생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나 농민 권익단체의 협조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가족, 친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 상당히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가진 집단에 대하여 주택, 생활보호, 보건, 위생, 병원, 공원, 복지시설 등 다양한 안정적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그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소비자운동, 취미활동 등 활동적인 시스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여성의 사회진출 의식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강한 사회진출 의지를 보이며, 고졸이나 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사회진출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유토지가 작을수록 사회진출 의지는 더 크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이 농촌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즉 경작작물, 집수리 그리고 농산물 판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농촌여성의 역할이 적은 반면, 돈관리, 식료품 및 옷구입,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큰 살림구입과 자녀의 교육 등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지배적이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토지소유 면적이 적은 경우의 집단이 대체적으로 아내가 돈관리를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토지소유 면적이 많을수록 아내가 돈관리하는 경향은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작작물이나 농산물의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내의 역할이 크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내의 역할이 작으며, 경작 작물, 농산물 판매 그리고 자녀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자녀교육 및 냉장고 등 큰 살림에 대해서는 30대 미만의 연령층이, 그리고 식료품 및 옷구입 및 집수리 등에 대해서는 40대 연령층에서 여성의 의사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여섯째, 농촌여성의 농정의식이 분야별로, 그리고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 및 소유토지별 집단별로 다르다. 농협과 같은 농민단체는 농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답변과는 달리, 정부의 농업정책이 현실의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신적인 면이 있다. 특히 40대나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농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 30대나 30대 미만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긍정도가 낮으며, 중졸이나 국졸이하의 집단처럼 학력이 낮을수록 농정에 대해 긍정적이며, 생활수준이 중간이나 하위인 경우와 소유토지가 5천평 이상의 집단과 1000평 미만의 양극단 집단이 농정에 대해 긍정적이다. 따라서 농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집단에게는 농정의 결정근거나, 정확한 통계치 등의 정보를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정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주민자문위원회나 주민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농촌여성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농사에 대하여서는 농촌여성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집단이, 학력별로는 국졸이하, 생활수준은 상위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에 따라서는 5000평이상을 소유한 집단이 각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30대 미만의 연령층이나, 중졸집단, 생활수준이 하위인 집단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이 2000평~3000평사이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여덟째, 농촌여성들은 가정활동이나 영농활동에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 농촌여성들은 가정활동에서 토지를 1000~2000평을 가진 집단이나 3000~4000평을 가진 집단보다는 2000~3000평을 가진 집단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며, 영농활동의 경우는 가정활동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데 특히 30대의 집단, 대졸이상의 집단 그리고 소유토지 면적이 2000~3000천평인 집단인 경우에 더 힘들어한다.

그 외에도 가정내에서 농촌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 30-40대의 연령층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비중을 둔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아내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경우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농산물 판매시 적정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농촌여성들이 농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사업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그리고 농촌여성들이 농협,

농업진흥원 그리고 각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교육내용은 자녀교육/생활설계이다. 특히 30대 미만의 연령층과 30대의 연령층 그리고 40대 연령층은 자녀교육/생활설계를,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건강/위생을 희망교육 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중졸 및 고졸 집단은 자녀교육/생활설계를, 국졸이하의 집단은 건강/위생을, 그리고 대졸이상의 집단은 시설원에 기술을 각각 가장 희망하는 교육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농촌사회에 보급된 농기계 중 경운기의 보급도가 가장 많고 이어 관리기, 세레스차 순이다. 농촌여성들은 텔레비전 및 농협/행정기관이 주요 영농정보의 원천인데, 30대 미만의 연령층의 주요 영농정보 원천은 농협/행정기관이며, 30대 및 40대의 연령층은 텔레비전이었고,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마을사람이 영농관련 정보의 주요 원천이다. 국졸이하, 중졸 그리고 고졸의 집단은 텔레비전이 주요 영농관련 정보의 원천이었고, 대졸 이상의 집단은 신문이 주요한 원천이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전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정보의 원천이 텔레비전으로 나타났다. 천평미만, 3000-4000평, 4000-5000평 그리고 5000평 이상의 집단이 모두 텔레비전을 주요 영농정보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00-2000평, 2000-3000평의 집단은 농협/행정기관을 주요 영농정보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정보의 효과적인 배분은 이들 각 집단이 적절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V. 結論 및 示唆点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발전도 크게 진전되었으며, 농촌환경과 영농조건도 상당히 개선되어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있으나 농가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공산물을 구입하는 교환과정에서 불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가 갖는 사회적 특성 중 전통적 예절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면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의식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켜, 합리적 인간상의 형성과 인간소외의 방지를 통해 합리적·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켜주는 마당이 되도록 함으로써 책임의식이 수반되는 개인적 역량과 집단적 역량을 함양·축적시키게 해준다.⁶⁴⁾

본 연구는 육지부 농촌과 다른 농촌환경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여성들이 가족/친족/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역할, 영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가 농촌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의 도입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선행연구가 육지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농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큰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들이 가족의식, 생활의식, 농업의 만족도 등을 포함한 많은 변수를 투입하고, 각 변수의 빈도 및 백분율에 따라 농촌사회의 의식구조를 파악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가족/친족/공동체 의식, 사회진출 의식, 가사의 분담, 농정의식, 농업의 만족도 등에 대해서만 의식구조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해 연령, 학력, 생활수준 그리고 토지소유 면적에 따라 사후검증을 포함한 평균차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인 검증을 거쳤다.

분석결과 각 변수가 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생활과 연계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풍양속의 가족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집안의 며느리모임, 딸모임, 부부 합동모임 등을 결성하여 가족간의 우애증진과 대화를 확대함으로써 고부간의 갈등이

64) 조문부, “한국민주주의의 과제-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제주지역개발과 정책과제, 제행논총, 제1집, 1993, p.59.

나 동서간 또는 형제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친족간의 결속과 농촌여성들의 친족연대 의식이나 남녀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집안문중의 족보나 묘소비석에 딸, 며느리 등의 이름을 써넣거나 제사, 별초시에 여성과 여자자녀 등을 참석시켜 조상의 뿌리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연령별, 취미별, 동네별로 친목계나 상부상조계를 결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는 사회적 기능이 강하므로 농촌사회의 문화로 정착될 때, 이웃간, 동료간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것은 가족, 친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전통적 의식을 발전시켜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여성의 문제해결은 정책적 순위에서도 하위로 설정됨으로써 여성들의 발전과정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취업시 채용, 교육훈련, 배치 등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대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에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관광단지 등의 조성으로 농촌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서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수립이 요청된다. 이러한 조치는 농촌여성들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농사에 대한 농촌여성의 만족정도는 설문결과 대체로 높은 편이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여주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여성 스스로가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의 산업적 측면이나 국민의 인식적 측면에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경시풍조와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여성들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생활만족에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원만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부부간의 도리, 고부간의 갈등해소 및 농가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이 보다 낮은 수준의 농가들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 통신,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지역개발 사업이 농촌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지역주민간의 결속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가정에서의 농촌여성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인간화 과정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은 가정에서만 질 수는 없으며 사회도 이에 대해 가정과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농촌사회에서 담당하는 가사의 역할은 돈관리, 식료품/옷구입,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큰 살림구입 그리고 자녀의 교육 등에서 남편의 역할보다 훨씬 더 크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는 노동력의 재생산 특히 어린이 양육, 노인 및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설과 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촌을 위하여 농촌에 탁아소나 유치원, 어린이의 집 등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여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농촌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문제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4. 농촌여성들은 가정활동이나 영농활동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끊임없는 반성과 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집안일도 부부가 함께 하거나 나누어하기 등 조화와 균형을 갖도록 부부가 민주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작은 일이라도 의논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5. 도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기계화 추진이 어려운 농토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소형농기계로 농작업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책은 중·대형 농기계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및 융자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력분무기 등 1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제주도 농촌여성들의 농사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여성이나 노령자들이 쉽게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적극 개발 보급해야 한다.

6.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농산물 판매시 적절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은 기술적 자연적 조건에 의하여 지배되지만 그 결과는 교환과정 즉 유통경제의 제조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리지 않으면 농가소득을 높이지 못한다. 농산물에 대해 적정값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등급, 규격 및 포장 기준 등을 최종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개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유통비용의 감소 및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노력은 물론 규격 및 포장에 필요한 세척기, 선별기, 포장기 등의 각종 관련기계의 보급확대 및 저렴한 포장자재의 공급을 통해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유기 또는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인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동시에 이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에 대해 행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이나 수입농산물의 과장 및 허위광고, 포장의 임의적 해체 등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을 보다 강화하고 동시에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의 실시도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선별, 포장, 저장, 가공시설 등 산지 유통시설과 수송수단 등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산지유통 시설은 가급적 모든 시설을 생산조직이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산지에서의 선별, 포장 등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포장 및 규격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저율의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우선 경매 등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농수산물 소매점포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 농수산물의 공동구매사업,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 및 금융지원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수산물의 수송을 개별회사 또는 소매체인 등이 담당하기 보다는 배송전문회사를 육성함으로써 수송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유통부문은 빠른 속도로 확대됨과 동시에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통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유통업무의 전문화·연계성·지속성 등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전문직 또는 소수의 유사한 행정업무내에서의 순환을 통한 동일한 업무에의 장기적인 근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촌여성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농촌여성들이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않았고, 농민의 권

익을 위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데서 기인한다. 다행히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⁶⁵⁾에 의거하여 종전 정부의 일반적 계획에 의거 실시되던 농림수산부문 투·융자 지원사업이 농어민의 창의와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한 농어민 자율사업 확대 조치로 농촌여건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농민의 요구사항 및 농촌문제를 폭넓게 수용·반영함은 물론 농정의 공개와 일관된 농업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농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은 상대적 저소득층인 농민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군단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통합도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여성 또는 농민의 노인병 및 농작업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8. 농촌여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연령별, 학력별, 생활수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촌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또는 부부를 함께 교육시킴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둘째,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농촌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자아의 개발은 물론 사회참여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화를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부응,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등 교육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구자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은 현장실습,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이 즐겁고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교육은 농촌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농번기나 영농철에는 교육을 삼가는 대신 대중매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필요한 사항이 고지되는 등 시기와 시간이 고려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농촌여성의 교육 및 지도는 행정기관, 농진원, 농수협 등이 담당함으로써 사업의 목적 및 조직구성원이 동일한데도 중복 또는 소관부처간 협조체계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너지도협의회 등을 활성화시켜 능률적인 농촌여성 교육 및 지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농가의 영농정보 즉, 작목정보, 파종정보 등 작목선택에 관한 정보와 농산물

65)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1994.12.14).

판매의 장단기적 계획에 필요한 농산물 수급정보, 작황정보 그리고 농업생산비를 줄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함에 필요한 농업경영 분야의 정보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설문조사 결과 영농정보의 원천은 신문, T.V, 마을사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가의 필요정보 추구욕구를 만족시켜 주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적절히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영농정보의 공식조직을 농업정보의 수집 및 분산에서 양적증대를 위하여 작목별로 더욱 세분화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정보의 지역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둘째, 영농정보의 수립을 맡고 있는 기관들은 좀 더 세분화된 질적 자료를 장기적 안목에서 축적해 나감은 물론 통계분석 정보 및 농가 경영분석 자료 등 농가의 영농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처리 부문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보유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확장과 재편,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의 주도와 함께 정보관련 분야 당국간의 적극적 협조로 농촌 정보화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서는 농업정보체계의 근대화 농업정보 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지역농업 및 지역정보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들간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지역수준에서 필요한 농업정보의 통합화가 되도록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농업정보화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국가기간 정보망에 의해 조정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부는 농업정보 분야 및 사업추진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參考文獻

1) 국내문헌

- 교육도서, 교육 세계백과대사전, 제15권, 1990.
- 김명훈·정영윤, 심리학개론, 박영사, 1993.
-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1971.
- 김주숙,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정, 도서출판 한울, 199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 1984.
- _____, 농촌사회구조변화와 농협, 1986.
- 박민자, “부부관계의 평등성”,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2.
- 신건식 외 3인, 농촌지도론, 진명문화사, 1973.
- 왕인근, 현대의 농촌사회학 - 한국농촌사회학 서설-, 박영사, 1983.
- 유희정의, 여성과 한국사회, 오름시스템(주), 1993.
- 정지웅, 농촌사회구조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4.
- _____, 한국의 농촌 - 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채서일·김범중·이성근,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학현사, 1992.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한길사, 1991.
- 한국농촌사회학회, 한국의 농민의식과 농촌사회의 전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2.
- 한국여성개발원, 현대사회와 여성의 역할, 1987.
- 한정자, 현대여성해방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2) 국내논문

- 권원달, “한국농민의 사회·경제관”, 정경문화 제206호, 1982.
- 김동일, “농촌주민의 사회관과 대정부태도의 사회학적 분석”, 농촌경제, 제3권, 제3호, 1980.

- 김성호, “농업기계화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당면과제”, 농업현실과 농업기계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김재인, “여성진로의 다양화와 교육의 역할”, 여성연구, 제11권, 제2호, 대명문화사, 1993.
-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부만근, “지역개발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사회발전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4.
- 안병만 외, “농촌지도자의 가치관·역할 및 지도유형과 새마을 운동의 발전방향”, 새마을운동연구논총, 제6집, 제2권, 새마을연구회, 1981.
- 양영철, “제주도 지방공무원들의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에 관한 태도분석”, 제주지역개발과 정책과제, 제행논총, 제1집, 1993.
- 왕인근, “새마을운동 성공의 선행적 필요요건”,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0호, 제1권, 1977.
- 윤근섭, “태도척도에 의한 농민의 전통적 가치관과 몇가지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농대논문집, 제2집, 1971.
- 이은죽, “한국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근대화의 일면”, 한국사회학, 제11집, 1977.
- 조문부, “한국민주주의의 과제-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제주지역개발과 정책과제, 제행논총, 제1집, 1993.
- 최신덕·김의순, “한국농촌주부의 역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총서, 이화여자대학교, 제26집, 1975.
- 최양부·오내원, “한국농촌 사회경제의 장기 변화와 발전 1985-20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최연우·최익수, “농민의 의식구조·변화”, 농촌경제, 제4권, 제1호, 1981.
- 한국여성개발원,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개원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1993.
- 한삼인, “지역공동체의 범규범-중문 일부지역의 관습·범의식·자치규범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연구 제10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4.
- 함인희,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여성연구, 11권, 제2호, 1993.

3) 외국문헌

Rogers, Everett M., *Diffusion of Innovations*, Free Press, 1962.

Sanders, Irwin T., *Rural Society*, Prentice-Hall, 1977.

Sorokin, P.A. and Zimmerman, C.C., *Principles of Rural-urban Sociology*, Henry Holt Company, 1929.

Wirth, Louis, *Our Cities: Their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1937.

4) 외국논문

Dewey, Richard, "The Rural-urban Continuum: Real But Relatively Unimporta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66, 1960.

Popenoe, D., *Sociology, Appleton Century Crofts*, 1974.

Tedfield, Robert, "The Folk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52, 1947.



Summary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ural Women's Consciousness - Focusing on Cheju Province -

Hur, Do-hoi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Chung-suk*

Today, there is little concern about the agricultural industry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even though it is of vital importance in providing the food for basic human need. However the life style of rural people has changed greatly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such as market - opening, mass media, transportation, etc. So various organizations must objectively evaluate their attitudes and change to establish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rural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rural women still keep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related to the immediate and extended family and the community, and if they have them, how strong they are and how their actions are reveal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strength of traditional consciousness. To accomplish this purpose, 565 rural women in the Cheju area were given questionnaires of which 454 were returned and 406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 (1) Introduction
- (2) Theoretical Backgrounds :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Rural Community
- (3) The Hypothesis and Method of Empirical Research
- (4) Empirical Research
- (5) Conclusions.

Frequency, multiple dichotomy groups, the T-test and one-way ANOVA by a statistical package, SPSS/PC⁺(Ver. 3.1), were used to analyze each variabl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of rural women for the immediate family, the relatives and the community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particular women.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for the family is strong, especially for the women in the older age group, shorter school career group and the group who owns much land.
The strength of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for other relatives is strong, especially for the women in the less educated group.
- (2) The strength of will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is getting stronger, especially for women in the younger age group, including the groups who finished high school or college and have less land.
- (3) The role for women has changed. The women's role in money control, purchasing articles of food and clothing, purchasing high-price items such as washing machines and refrigerators and education for the children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the men.

- (4) It is positive for the func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while generally distrustful for government policy, especially for the women in the 30 year-old or less age group and the group who have owns more than 5,000 Pyong(16,530 square meter) of land.
- (5)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agriculture is high enough for the women in the 30 year-old age group, the group who finished primary school and the group who has more than 5,000 Pyong(16,530 square meter) of land, while it is low for the women in the less than 30 year-old age group, the group who finished middle school and the group who owns land between 2,000 and 3,000 Pyong(6,612~9,918 square meter) of land.

Limi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1) Since the data samples were collected only from Cheju, there may be difficulties in generalizing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research.
- (2) The chance to answer was not given to the women who are not members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 (3) More proper and standardized questionnaires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in further stud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rural people's consciousness.

設 問 紙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제주도내 농촌여성들이 생활하시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연구자료로 활용코자 설문하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문항이 포함된 설문은 이용되지 못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조사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학술적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아주머니택에 즐거움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빌며 설문응답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5. 8.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허도희 올림

I. 다음사항은 아주머니께서 평소 생활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생각하고 계신 사항들입니다.

1)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시는지 해당번호에 ○표를 해 주십시오.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이다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①	②	③	④	⑤
1) 장남은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더라도 부모를 모셔야 한다.					
2) 시대가 변했더라도 가족의 대표는 남자이다.					
3)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은 주로 남편의 잘못일 경우가 많다.					
4) 집안의 대는 양자를 해서라도 이어야 한다.					
5) 고향을 떠나 사는 자녀는 바쁜일이 있더라도 제사나 친족행사에는 참여해야 한다.					
6) 나에게 이롭지만 가문이나 친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7) 이웃 및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8) 마을행사에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참석해야 한다.					
9) 이웃이 상을 당했으면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도와야 한다.					

- 2)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그저그렇다 ④ 대체로 반대 ⑤ 절대반대
- 3) 아주머니께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 매우만족 ② () 대체로 만족 ③ () 그저그렇다
 ④ () 대체로 불만 ⑤ () 매우불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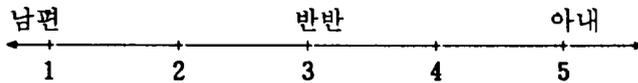
II. 다음 사항은 가정에서나 영농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 4) 아주머니께서는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에 **주요 비중**을 두십니까?
 ① () 어머니로서의 역할
 ② () 아내로서의 역할
 ③ () 며느리로서의 역할
 ④ () 기타
- 5) 아주머니께서는 집안일과 농사일이 얼마나 힘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내용	매우힘듦 ①	힘든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수월하다 ④	아주 수월하다 ⑤
1) 가정활동					
2) 영농활동					

- 6) 농사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우선순위를 괄호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 농사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
 () 농기계사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기계이용이 어렵다.
 ()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
 () 집안일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수 없어서 어렵다.

- 7) 아주머니 댁에서는 누가 주로 돈을 관리하십니까?



8) 아주머니께서는 다음 사항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설문내용	남편		반반		아내
	①	②	③	④	⑤
1) 경작할 작물의 결정					
2) 농산물판매에 관한 결정					
3) 자녀의 교육문제					
4) 자녀의 혼사문제					
5) 식료품이나 옷 등의 구입					
6) 큰살림(냉장고,세탁기 등) 구입					
7) 집수리 문제					

Ⅲ. 다음 사항은 농정에 관해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9) 아주머니께서 다음의 각 농정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실의 농업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농민의료보험제도는 농민입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3) 농촌지도소의 농업기술보급은 과학영농과 소득증대의 계기가 된다.					
4) 농협과 같은 농민단체는 농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이 된다.					
5) 정부의 농업정책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집단시위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10) 아주머니께서는 농업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할 일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1개만 선택)

- 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유통구조개선 ②() 농업의 부업알선
 ③() 농약/농기계 등 농자재값 인하 ④() 값싼 영농자금융자
 ⑤() 농가부채의 해결 ⑥() 경지정리
 ⑦() 기타()

11) 농협, 농진원, 행정기관 등에서의 교육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희망하십니까? 있는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생활 개선 | ②() 컴퓨터 등 자녀교육 및 생활설계 |
| ③() 가족의 건강, 위생 | ④() 농기계사용법 |
| ⑤() 시설원예기술 | ⑥() 감귤전정/비료/농약사용법 |
| ⑦() 특용작물재배기술 | ⑧() 취미/오락/교양(꽃꽂이, 붓글씨) |
| ⑨() 농협사업/정부시책 등의 홍보 | |

IV. 다음사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입니다.

12) 아주머니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①() 30세 이하 | ②() 31세-40세 |
| ③() 41세-50세 | ④() 51세-60세 |
| ⑤() 61세 이상 | |

13) 졸업하신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①() 학교에 다닌적이 없다 | ②() 국민학교 |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 ⑤() 초급/전문대학 | ⑥() 대학교 이상 |

14) 아주머니댁의 생활수준은 다음중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높다 | ②() 대체로 높다 |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낮다 |
| ⑤() 매우 낮다 | |

15) 아주머니댁에서 경작하고 계신 농지(밭, 과수원)는 모두 합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500평미만 | ②() 500평-1000평 미만 |
| ③() 1000평-1500평 미만 | ④() 1500평-2000평 미만 |
| ⑤() 2000평-2500평 미만 | ⑥() 2500평-3000평 미만 |
| ⑦() 3000평-3500평 미만 | ⑧() 3500평-4000평 미만 |
| ⑨() 4000평-4500평 미만 | ⑩() 4500평-5000평 미만 |
| ⑪() 5000평 이상 | |

16) 아주머니택에서 소유하고 계신 농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있는대로 표시
해 주십시오.

- | | |
|-----------|-----------|
| ①() 경운기 | ②() 트랙터 |
| ③() 바인더 | ④() 콤바인 |
| ⑤() 관리기 | ⑥() 세레스차 |
| ⑦() S.S기 | |

17) 영농관련 정보는 다음 중 어느 것을 통해 주로 알게 됩니까?

- | | |
|------------|-------------------|
| ①() 신문 | ②() 잡지 |
| ③() 텔레비전 | ④() 라디오 |
| ⑤() 마을사람 | ⑥() 농협/행정기관등의 교육 |
| ⑦() 기타() | |

